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24일) 2021년 5월 5일 수요일

"포교 해법 '현장·소통'서 찾겠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4월 28일 취임 기자간담회

집행 동력 위해 본사 소통
중앙 일변 종책 수립 탈피
디지털활용 신도역량 결집
걷기순례의 국민수행 개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함께하는 포교를 위해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비롯해 교구본사·지역사찰과의 소통을 진행한다.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4월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 가는 포교 종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제8대 포교원의 기조를 밝혔다.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포교종책 △현장에서 생동하는 전법 △미래불교 기틀을 놓는 포교라는 3대 종책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함께 만드는 종책과 포교다. 현장 포교와 미래 포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참하는 대중들의 원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스님은 "포교는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들이 바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상호소통 과정"이라며 "맞춤형 포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8대 포교원은 7대 포교원에서 진행한 신행혁신 운동을 대부분 계승한다. 다만 수행문화 보급과 신도교육 체계화, 뉴미디어 포교 등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범해 스님은 이에 대해 부지깽이라도 세우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그동안 포교원의 다양한 종책에도 전국적인 확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정기적인 소통과 현장 목소리를 담은 종책수립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가톨릭의 경우 시노드 회의와 같이 단위별 포교 논의, 집행이 구성되어 있다. 포교원에서 그동안 훌륭한 종책을 펴내도 지침하달 방식으로는 다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포교역량 발굴이 선행되고 사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포교국장 회의를 시작으로 제8대 포교원장 취임식 등을 조계종 최초로 언택트로 진행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소통이 기대된다.

범해 스님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각 지역 전법도량, 수말사까지 종책이 함께 공유되고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만들겠다. 본사와 단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구본사와 수말사,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말사신도회 등을 통해서 포교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서 생동하는 전법의 원동력을 위한 신도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 신도 역량 결집을 위해 포교사 제도 개선을 비롯해 포교신도단체와 결합한 지역 포교네트워크 구성이 진행된다. 그동안 발급된 카드 형태의 신도증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에서 포교원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모바일 신도증 발급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전법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중요성에 따라 포교원은 걷기순례, 걷기명상을 수행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좌선과 사경, 독경, 염불 등의 활성화가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법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 명상과 건강 증진과 맞물린 걷기를 불교가 지닌 순례, 수행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범해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 이들 중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선택해야 한다.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상월선원 걷기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려내 하반기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포교를 위해 뉴미디어 포교콘텐츠 제작과 함께 동련 등 포교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발전도 포교원은 적극 진행한다.

범해 스님은 "이번 취임에서 보여준 언택트 방식이 사찰법회 등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다. 젊은 층과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은 포교방법이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특히 "포교원 기조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7대 포교원 성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겠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포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발맞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개인들이 청정하고, 상대가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해지는 마음가짐을 가져 하루 빨리 사회가 청정해지고, 마스크를 벗고 정담을 나누는 시기가 오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한 범해 스님은 8대 포교원의 행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광장 불 밝힌 희망·치유의 燈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의 장엄등이 서울광장에서 한달여 동안 불을 밝힌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8일 서울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재현됐다. '미륵사지탑 등(燈)'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가 18m에 이르며 미륵사지탑의 70% 크기에 회화적인 면을 더했다. 탑의 양식을 그대로 살려 단아한 기풍의 한지 등(燈)으로 제작했으며, 40호 크기 한지 500여 장이 사용됐다. 봉축장엄등 '미륵사지탑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불을 밝힐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발전이 불교중흥 한국불교 살리는 길"

학교법인 동국대, 4월 29일 건학위원회 발족

고문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 만장일치 추대

학교법인 동국대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인 '건학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5층에서 건학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최고위원 및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공식 활동을 시작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원회)는 △증명 △고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문단 △분과위원회(교육·의료·지역·글로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5층에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모셨으며, 고문으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건학위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 일성은 종립학교 구성원조차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출범하는 건학위원회는 종립학교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인 산하의 여러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지혜를 모아달라. 여러분의 손에 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고, 한국불교의 희망이 자란다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0여 년 전 선지식들이 종단의 귀중한 정재를 희사해 시작한 교육불사가 건학이념이자 대승보살행의 큰 길임을 강조한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이 동국발전에서 시작되고 동국의 발전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된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며 "모두의 마음을 간절하게 모아 제2건학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건학위원회 출범을 자축했다. 성우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출범은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하는 면면불조와 역대조사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자 자랑스러운 선지식을 길러내는 출발점"이라며 "4만 5천 법인 가족 모두는 큰 환희심을 가지고 건학위원회의 새 출발을 자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 시설 설치·구성, 관련 활동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건학이념 구현과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 △동국인의 원력 결집과 실천을 통한 동국발전 △미래의 교육과 의료를 선도하는 건학 불사로 정했다.

또한 전략과제로는 △불교인구 확산과 불교 소양 함양 강화를 위한 교육불사 △약사여래불의 서원 실현을 위한 의료불사 △친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문화 확산 △동국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보시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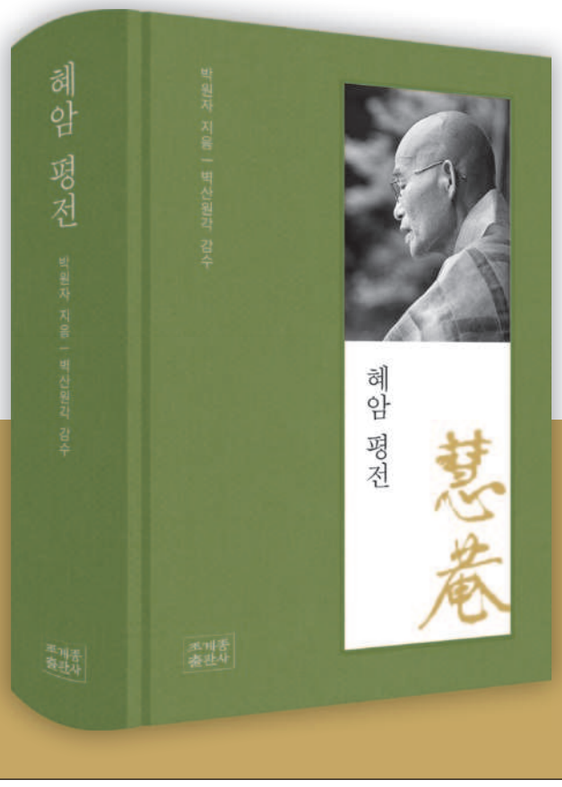
이에 따라 법인 산하 각급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중 기관 내 건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불교종립 동국대학교는 교육보국과 인재불사를 위해 선각자 스님들이 지난 1906년 설립했다. 개교 115년이 된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건학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을 통해 제2건학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 위원장 자승 스님(현판 좌측 첫 번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을 했다.



박원자 지음
벽산원각 감수
652쪽
값 30,000원

혜암 평전 慧菴
화제의 신간

공부하다 죽어라!
'목숨을 내놓고 정진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등
혜암 스님의 서슬 퍼런 일갈은 문득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

가야산 정진불, 혜암 스님의 사자후—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혜암 스님의 첫 평전!

구입문의:불교전문서점 향진 www.jbbook.co.kr | 02-2031-2070~1

조계종 출판사

종정 지허 스님, "종단 새 미래" 천명

태고종, 4월 28일 추대법회 봉행
취임법어에서 '부단한 정진'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이 4월 28일 서울 한국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에서 봉행한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의 추대법회에서 지허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태고종도의 수행과 확철대오의 종지를 철저히 믿고 행하는 종단이 되도록 자나깨나 다 같이 정진합시다. 이제부터 밝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4월 28일 서울 한국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에서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지허 스님은 취임법어를 통해 종도들의 화합과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의 새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지허 스님은 "태고종은 한국불교 1500년 역사를 잇는 종단으로, 700여 년 전 고려말기에 태고종조께서 임제선종의 20세 적손으로 법맥을 이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며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 종단의 안정과 태고종조의 가르침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말세의 어둠 속에서도 세계불교의 횃불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원로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조현래 문체부 종무실장,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했다.

종정추대법회는 태고종 제2의 도약을 선언하는 법석이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어진 종단 내 혼란이 종식된 후 종단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상징인 종정의 공식 추대법석은 곧 종단 정상화를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육부대중과 내외 귀빈이 한자리에 모여 지허 종정 예하의 추대를 더욱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 종단이 수년에 걸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종식하고 화합과 안정 위에 한단계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굳은 발원이 한마음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종정 예하를 모시고 시대와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종단지표를 마련해 더욱 안정되고 화합하는 종단 운영과 발전을 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장 도광 스님의 추대사와 호법원장 지현 스님의 헌사에 이어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법좌에 오른 종정 스님에게 불자와 주장자를 봉정했으며, 모든 사부대중은 삼배로 예경을 올렸다.

종정 지허 스님은 취임법어에서 "우리종단은 해방 이후 불교분규라는 불행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잃고 빈 바닥에서 종단을 재정비 한 지 50년이라는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부터는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태고조사가 석옥청공 선사에게 바쳤던 '태고암가'를 인용해 "태고종의 후손으로서 태고조사의 종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도들은 이를 되새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대법회에는 불교계 안팎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종정 취임을 축하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현래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애국애민 사상을 계승한 태고종은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기원법회를 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선교를 겸수하신 스님께서 앞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기대를 전했다.



KCRP는 4월 27일 남북출입사무소 북단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4.27선언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KCRP, 판문점서 3주년 기념식
시민사회단체와 호소문 공동발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남북 지도자들은 판문점 회담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는 4월 27일 서해선 남북출입사무소북단 DMZ통문 앞에서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날 '판문점 선언 3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판문점 선언 3년을 맞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창백하고 하노이 북미회담의 파탄에게만 짐 지울 수 없는 명백한 후퇴가 있었다"며 "다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가 만났던 그 순간은 더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것을 만든 노력만큼 남북은 왜 좀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시작함에 있어 성찰을 새기고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며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가 자기 행위의 이유있음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전체를 지탱했던 공감은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든은 이에 △남북 지도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만날 것 △대화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할 것 △판문점 선언 및 9.19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한국천주교 대주교,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와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법화종 원로원, "종정 도선 스님 지지" 천명

4월 23일 의원 연명으로 공표
"종정 스님 적법성·위의 존중"
총무원장 서리 집행부도 인정
비대위엔 해산·해종 중단 촉구


원로의원 스님들이 4월 23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종정 도선 스님에게 예를 갖추고 있다.

법화종 원로원 의원 스님들이 종정 도선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종단체로 규정해 법화종 정상화 향방에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화종 원로원은 4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법 정당한 과정을 통해 추대된 종정 예하의 위의를 존중하고 종정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의 집행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종헌 종법에 근거도 없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고 이에 동조·참여한 종권승들은 해종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화종은 지난 3월 법원이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 수습을 위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임명됐지만 전 집행부와 일부 종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좀처럼 정상화 가닥을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서리 임명 직후 총무원 청사에서 업무집행 및 후속절차를 공지했지만, 전 집행부 측의 거부로 일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종헌종법상 근거 없는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 없이 '이중승적'을 이유로 종정 도선 스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거세다. 비상대책위원장 성운 스님은 지난 4월 7일 종정 스님에 대해 '종정 사칭'을 이유로 제적을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원이 종정 스님의 적법성과 위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이 많다. 원로원은 종법상 종단 최고의 자문기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로 스님들은 "지난 수개월 사이 2013년 종단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세력이 돌아왔고 종권승들과 야합해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전과 문제와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직무집행이 정지됐음에도 여전히 그 집행부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종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의 본분도 저버린 채 해종세력과 결합해 비상대책위원회란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대표위원장을 맡아 총무원장 서리의 업무를 방해했고 종정 스님을 징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로원은 "혼란이 지속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종도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총무원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해종세력은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종도들의 무관심이 종단을 지금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위선과 오만, 독단과 거짓에 능한 종권승들의 야합을 막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참담한 현실을 불러왔다"며 "탐심으로 모인 해종세력의 세가 더욱 커지자 불의가 다수가 되고 정의가 의심받는 비상식을 목도하며 종단이 천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입장문은 원로회의를 거쳐 최종 결의됐으며 원로의원 스님들의 연명으로 공표됐다. 원로의장 진파 스님은 원로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연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승가 장학금 지원

5월 3일~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조계종 직할교구가 승가 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 온 장학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직할교구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6회 승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승가 장학금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동화사, 범어사, 법주사, 불국사, 송광사, 수덕사,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동학사,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등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재학승이면 신청 가능하다.

승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신청서와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은사스님 추천서와 교육기관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표,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다.

직할교구는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선재장학금 지원자도 모집한다. 직할교구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예체능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직할교구 소속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예체능 전공(2년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재적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02)2011-1931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불교리더스포럼 재구성…5기 임원 위촉

조계종, 4월 28일 위촉식

상임대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본사 중심 전국 조직으로 확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은 4월 28일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불교적 신념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을 구성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특히 지도법사단과 고문단, 지역교구 포럼을 신설하는 등 조직구조를 정비하고,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활동범위를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리더스포럼 5기 임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상임대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상임부대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중심으로 공동대표 15명과 감사 2명이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5기 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위해 일해 오신 분들을 불교리더스포럼 대표로 모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불교 발전과 수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원력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에게도 "중앙신도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불교를 중심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공동대표는 이귀남 前 법무부장관(법조),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국회),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재계), 김민배 TV조선 사장(언론),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문화예술),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보건의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금융),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여성), 손창동 감사원 감사위원(공공),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회장(체육), 최현국 공군예비역 중장(군),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남북), 정연만 前 환경부 차관(환경), 윤성이 동국대 총장(교육)이 위촉됐으며,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5기 불교리더스포럼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교구포럼 신설을 통한 활동 범위의 확대다. 24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역포럼을 구성해 전국의 분야별 불교지도자를 발굴, 조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포럼에 참여한 인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200여 명 가량이었던 데 반해, 5기 불교리더스포럼은 서울 500명, 지역 500명 등 전국 구성원 1000명을 목표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15개 직능분야별 25~28명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교구포럼은 교구별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교구장 스님과 총무원장 특보단장 스님 등 지도법사단을 신설해 보다 긴밀한 교류와 소통도 추진한다. 또 1~4기 임원들로 구성된 고문단도 신설해 지속적인 인연을 통해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15개 분과별 공동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운영위원단과 집행위원단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체모임 뿐 아니라 분야별 모임을 활성화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종단과 교구 등 불교계 현안을 잘 살피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이날 김동건 전 상임대표와 박기련 前 사무총장에게 그동안 불교포럼을 위해 힘쓴 데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재한외국인 스님들도 "미얀마에 평화를"

다문화불교연합회, 4월 25일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서
'미얀마 평화 기도법회' 봉행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따타-가땅 데-와마눗사뿌-지땅, 상강 나땃사-마 수왓티 호-뚜." (완전하신 상가에 예경 올리니, 이로써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테라와다 전통의식을 통해, 고통받는 미얀마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미얀마 현지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재한외국인스님들의 모임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회장 담마끼띠, 이하 다불연)가 4월 25일 아산 스리랑카사찰 마하위하라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과 태국 붓다라마사원 주지 지라삭 스님, 네팔 텍첸사 주지 쿤상 스님, 베트남 원오사 주지 팃뜨엉탄 스님, 미얀마전법선원 우웃따라 스님을 비롯한 각국 신도들이 참석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법회에 앞서 헌화와 촛불 공양을 진행했다. 이번 사태로 희생된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다.

다불연 회장 담마끼띠 스님은 "미얀마는 지금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존재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힘겹게 군부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이어 스님은 "다불연이 마련한 이번 평화기도회가 미얀마 평화의 길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회의 취지를 전했다.

국가와 민족은 달랐지만 미얀마의 평화를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로 맞닿았다. 스님들은 팔리어로 테라와다 전통 방식으로 법회를 이어가며 한마음으로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는 테라와다 전통 평화의식의 일환으로 오계와 삼보 예경, 〈자애경〉 독송으로 시작됐으며, 미얀마 사태로 희생당한 영가들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각 국가별 전통에 따른 의식도 이어졌다. 베트남 원오사 주지 팃뜨엉탄 스님이 집전한 가운데 베트남 불자들은 〈삼부경〉와 〈자비경〉 낭독, 관세음보살 기도로 세계 모든 중생의 공존과 평화를 발원했다. 팃뜨엉탄 스님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얀마 평화를 기도하는 동시에,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미얀마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통이 어서 끝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미얀마전법사원 주지 우웃따라 스님은 "외신을 통해 미얀마 본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양곤 등 대도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시민들이 심각한 공포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 법당을 찾는 유학생과 노동자들 역시 가족에 대한 걱정과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송지희 기자

'채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불교환경연대, 캠페인 선포
전국 사찰 2300여 곳 대상



부처님오신날 캠페인 포스터

기후위기 극복위한 노력불교환경연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230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을 제안했다. 기후위기로 각종 부작용에 직면한 지구와 지구상의 뭇생명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생명 존중을 통한 실천행에 나서자는 취지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4월 28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공동캠페인' 활동계획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불교기후행동, 녹색사찰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조계종 사회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전국 사찰 2200곳과 21개 녹색사찰, 61개 불교기후행동 참여사찰과 단체에 안내 공문과 포스터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한 실천방침은 △채식하기 △빈그릇 운동 △일회용품과 비닐·플라스틱 줄이기 세 가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찰은 구체적인 실천내용과 취지를 담은 포스터를 경내에 부착하고, 실천지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신도들이 사전에 텀블러와 개인용기를 지참하도록 공지하면 된다. 또 법문 때 육식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캠페인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알리고 실천상황을 사찰 및 단체별로 공유하거나 실천노트 등으로 구체화한다.

개인 동참도 가능하다. 음력 4월 초하루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3가지 실천방침을 준수하고 이 과정을 SNS 등에 게재하면 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오신날 생명살림 실천약속'을 담은 서약운동도 전개한다. 서약서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사회가 낳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 취지가 담겼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종교계가 나선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주영 사무처장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채식과 빈그릇 운동, 일회용 물품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불교적인 실천행을 확산시키고 불자 개개인이 '불자다움'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도서 발간과 새로운 비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10월 21일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6월 11일 토론회 등을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발자취를 되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20년을 담보할 비전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본사지위 회복한 선암사, 재적승 모집

조계종, 재적승 접수 시작

조계종 본사지위를 회복한 제20교구 본사 선암사가 교구 재적승을 모집한다.

조계종은 4월 20일 홈페이지에 선암사 재적승 신청안내를 공고하고 선암사를 재적본사로 취적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220차 중앙종회임시회가 제정·공포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선암사의 교구 지위 회복에 이은 후속조치다. 승려법은 1명당 1교구본사 재적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암사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현재 재적교구 외에 선암사를 중복 취적할 수 있다. 또 선암사 교구 재적승이 되더라도 기존 교구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재적승 신청서와 수행이력서를 첨부해 선암사(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조계종 선암가)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보다 우편 접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청 결과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061)725-5108

노덕현 기자





승가 기본소득, '기본수행권 보장'서 시작

유승무 교수, 4월 28일 국제컨퍼런스서 발제



종교특별세션 불교 대표로 참석
기본수행권보장제도 제안 '눈길'
기본소득 4대 원칙 그대로 반영
승가 특수성 맞게 원칙 등 제안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사진>가 기본소득을 한국불교 승가에 적용한 '기본 수행권보장제도'를 제안해 주목된다.

유승무 교수는 4월 28일 경기도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세션에서 불교 측 대표발제자로 참석해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 수행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승무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본소득을 한국불교, 특히 승가에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승가는 불제자들의 공동체로 불교를 대표할 뿐 아니라 기본소득과 직접 연관해서도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한국불교에 적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실험실이다. 반대로 이 때문에 사적소유를 전제한 소득 개념을 그대로 승가에 적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유 교수는 기본적인 전제로 "불교, 특히 승가의 경우 '수행자다움' '스님다움'이라는 조건이 갖춰질 때 생계의 문제가 일부 해결된다는 점에서 소득의 원천은 수행이다"며 "기본소득 개념을 기본수행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의 승가가 실제로 모든 출가자들에게 기본수행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에게 기본 수행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만약 실행된다면 기본수행권 보장의 일부 재원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 보탬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기본수행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설계도'를 제시하고 △명칭 △원칙 △지원금액 △재원 마련방법 △제도화의 추가적 조건 △제도화의 효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 교수는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기본수행권 보장제도로 칭하고 기본소득제의 4대 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모든 구성원에게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개개인이 기본적인 수행생활에 충분할 정도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보시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후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승가구성원자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사안으로, 계율준수의 의무, 법보시의 의무, 자자 및 포살 참여, 수행이력 증명서 제출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금액은 수행자 1인당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한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이 전면시행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매월 30~50만 원의 수행권보장 보시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재원 마련방법이다. 기본소득분을 제외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유 교수는 △세금의 형태인 '사찰 점유비' 납부 △전국 수말사급 이상 규모의 사찰의 '규모사찰 점유비' 납부 △'기본수행권 보장 보시함'을 통한 모연 △관광사찰입장료 일부를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편입 △일부 출가자의 재보시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기본수행권보장제도가 종단 분담금과는 다른 수행지원 보시금이며 용주사 등 일부 교구에서 이미 일종의 수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단위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불교계는 공유재로서 삼보정재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승가의 문화 또한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 교수는 예측했다. 원융살림의 인식확산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또 승가내 불평등과 사유화, 세속화, 범계 등 부정적인 추세를 일시에 개선하고 승가 공동체성과 화합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교수는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오직 초발심의 자세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출가자의 숫자가 늘어나 우수한 출가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불교가 사회변동의 추세를 받아들여 그 경험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화 과정은 당연히 크고 작은 쟁점이 수반될 것이지만, 기본수행권보장제는 교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당성,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요청에도 부합한다"며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승가형 기본소득제로서 기본수행권보장제도가 명실상부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될 수 있길 꿈꿔본다"고 기대했다.

대불련 제59년차 중앙회장 선출돼

비대위서 정식 체제로 전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4월 27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청담 안현민 서울지부장<사진>을 제59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를 종료했다. 안현민 59년차 중앙회장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왔다.

59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안현민 서울지부장은 동국대 경제학과 17학번으로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해 활동해 왔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 회장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대불련 서울지부장도 함께 맡고 있다.

안현민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생 청년 불자 포교와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법우들에게 고맙다. 앞으로 대학생 포교를 위해 회장으로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1백주년 만해평화센터 완공 초읽기

서울 돈암동에 위치, 불교문화공간 활용 예정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100주년 기념 '만해평화센터' 실내 법당 조감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을 추진 중인 만해평화센터가 불사 성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불청은 최근 5월 중으로 만해평화센터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조율 중으로 부처님오신날 후인 5월 하순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불청 만해평화센터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청년포교를 위한 보금자리로 마련되는 곳으로 서울 돈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약 4억여 원의 대불청 회원들의 불사동참이 이뤄졌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 불사를 위해 백만불사 오백나한 초청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는 법당과 함께 대한불교청년회 100년 자료를 모으는 서고 등이 들어서며 불교문화 홍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해평화센터 건립 후 전법회관에 위치한 사무실은 행정공간으로 기능을 유지한다.

한편, 대불청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하철 역사 등달기, 연등회 호기놀이 등을 진행한다. 또 올해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사업과 8월 15일 만해백일장 등도 준비 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로 주거환경 개선, 조계사가 책임진다

가피봉사단 집수리 봉사
'행복 나눔 집수리' 진행
2가구 장판 벽지 교체해



행복나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조계사 가피봉사단원들.

"내가 이 집서 8년 사는 동안 벽지 한 번을 안 발랐어. 누런 벽지가 죄다 떨어지고 일어나서 가루도 날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깨끗해진 흰 벽지를 보니 참 좋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 좋으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어쩐대."

이옥분(88)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낡고 빛바랜 벽지와 장판을 싹 걷어내고 마치 새 집과 같은 깨끗한 공간을 선물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가피봉사단 집수리팀은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뒷골목에 위치한 이옥분 할머니의 집에서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 정리부터 곰팡이 제거, 기존 벽지 제거에 이은 새 벽지 도배, 장판 교체까지, 집수리팀장의 지휘에 따라 봉사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화재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증정을 시작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 등 간단한 교육도 이어졌다.

이날 작업은 조계사 가피봉사단의 '행복나눔집수리-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사업의 일환이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새롭게 교체해,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울시 공모 선정사업으로 종로구청과 성북구청, 한부모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행복나눔집수리'를 통해 변신한 집만 20여 곳에 달한다.

조계사 포교사회국장 상범 스님은 "오늘 이옥분 할머니의 공간은 도배·장판 교체지만, 싱크대 교체, 변기 교체 등 매번 대상가정에 가장 열악하고 필요한 곳을 수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집수리봉사단 팀장님들이 본업을 할 시간을 빼서 집수리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뉴미디어 전법사 크리에이터 선발

조계종 포교원 5명 추가 공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새로운 불교 크리에이터 5명을 추가로 선발해 뉴미디어 상에 불교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8일 불교 크리에이터 2기 공모를 통해 최우수 크리에이터 2명과 우수 크리에이터 3명 등 모두 5명을 선발해, 창작지원금 총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크리에이터는 영상 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근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이, 우수 크리에이터는 이연수·자홍 스님·장수현 씨 등 3명이 선발됐다.

포교원은 전문가 및 교무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 크리에이터 2명과 우수 크리에이터 3명으로 나누어 최종 선발했다. 한편, 포교원은 5월 초에 불교 크리에이터 2기 위촉식을 열고 이후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강의하는 모습.



법송 스님이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학생들에게 한국 사찰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주영한국문화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의 온라인 업무협약 기념식 모습.



법송 스님이 한국 사찰음식 쑥 버무리를 시연하기 전 한국의 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영국 예비 셰프들 'K-사찰음식'에 매료

불교문화사업단, 르 꼬르동 블루 사찰음식 온라인 강의

문화원·런던캠퍼스와 협약 맺고
런던캠 채식과정 정규 처음 편성
줌통한 화상 온라인 강의로 진행
한국 나물 이용한 6개 음식 강의
한국사찰음식 특징 등도 소개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사용하죠. 봄에는 땅에서 먼저 나오는 채소나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밭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농사지어 먹어야 하고요. 가을에는 뿌리채소 위주로 사찰음식을 만들죠. 겨울에는 해조류 위주로 먹을 때 몸에 좋아요. 또 가을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식재료를 저장해두죠. 콩류나 두부 등도 겨울에 먹는 식재료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찰음식의 자랑할 만한 특징은 제철에 나오는 천연 재료와 양념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의 친절한 강의가 온라인을 타고 영국 런던의 셰프 지망생들에게 전해졌다. 진지하게 강의를 들은 푸른 눈의 예비 셰프들은 이내 'K-사찰음식'에 금방 매료됐다.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정규 교육과정에 최초로 진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 강의를 4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르 꼬르동 블루'는 프랑스 파리에 본교를 둔 세계적인 요리학교로, 미국의 'CIA', 일본의 '츠지조리사전문학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요리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르 꼬르동 블루는 전 세계 20여 국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숙명여대에 분교가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요리학원인 르 꼬르동 블루에 한국 사찰음식 강의가 정규 학위과정에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식학위 정규 교과 편성은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문화사업단은 지난 2018년 10년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에서 사찰음식 특강 및 만찬을 성료한 이후 이같은 제안을 받았다.

이후 문화사업단은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도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의 '채식 전문 조리 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에 한국 사찰음식 강의를 한 학기에 정규강의로 2회 진행키로 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협약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참여했다. 강의는 영어 순차 통역으로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에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강의에서 강사 법송 스님은 사찰음식의 특징과 역사, 한국의 봄나물 소개 등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스님은 "한국의 사찰음식이란 몸과 마음이 어우러진 음식, 자연과 인간,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라며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쑥 버무리, 엄나무순 콩가루 된장국, 돌나물 김치, 취나물, 고수전, 고수 겉절이 등 6개 사찰음식 소개와 조리법을 강의했다.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재학생들은 법송 스님의 조리 시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며, 한국의 사찰음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중간에는 문화사업단이 사전에 런던으로 송부한 부각을 시식하며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직접 맛보기도 했다.

2시간의 강의 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재학생들은 사찰음식과 채식의 차이, 사찰김치 재료에 대한 궁금증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 학생이 '사찰 김치에 해조류가 사용되는가'라고 묻자 "사용된다"고 답한 법송 스님은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는 25개의 해조류가 나온다. 이 해조류를 김치를 만들 때 사용하면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계절음식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콩국을 제일 좋아한다"고 밝힌 법송 스님은 "밥을 죽으로 만든 뒤 흰콩을 넣어 3번 끓여 비린 맛을 잡는다. 아침은 꼭 드셔야 한다. 콩죽은 아침 대용으로 매우 좋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서로 만나자는 약속도 이뤄졌다.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셰프 콜린 웨스탈(Collin Westal)은 "우리 클래스(Class)에는 21명의 학생이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에 가서 사찰음식을 직접 배워보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그러자 법송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하시면 된다. 대전 영선사에 오시면 사찰음식도 배울 수 있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대전 영선사는 법송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으며, 문화사업단에서는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법송 스님은 "한국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시 여긴다. 오늘의 만남은 지구 100바퀴를 돈 인연"이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26일에는 문화사업단과 주영한국문화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의 업무협약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온라인 협약 기념식에는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이정우 주영한국문화원 이정우 원장, 에밀 미네브(Emil Minev)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조리전공과 학과장이 참석해 활발한 상호협력을 이어갈 것을 협의했다.

영국에서 문화사업단과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간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정우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문화사업단과 손잡고 사찰음식 해외 홍보를 함께해왔다"며 "이번 정규강좌 편성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밀 미네브 학과장은 "한국의 사찰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을 선보이며, 최근 르 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학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사찰음식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미식 강국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찰음식 만찬과 강의, 전시를 진행했던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우리나라의 사찰음식을 영국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하반기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강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영축총림 통도사, '禪茶' 문화 전파 나선다

햇차 제다 · 헌공의식 진행

'다선일미'의 선가 가르침
1989년부터 전승 시작 해
총 3천 여평의 차밭 형성
'통도사 선다연구회' 결성





영축총림 통도사는 4월 23일 통도사 염불원 옆에 조성된 다원에서 햇차 제다(사진 왼쪽) 및 헌공 의식(사진 오른쪽)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선차에 담긴 불교문화와 선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23일 통도사 염불원 옆에 조성된 다원(茶園)에서 햇차 제다 및 헌공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의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문 스님과 율원, 강원, 선원, 염불원 스님 100여 명이 울력을 진행했다.

올 해는 유난히 동파 피해가 많아 찻잎 하나하나가 귀한 상황이었기에 동파를 이겨내고 고개를 내민 찻잎을 따는 스님들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스님들은 채다 후 염불원에 있는 제다실에서 뜨거운 솥에 찻잎을 넣고 비비는 전통방식으로 차를 덖었다. 이후 스님들은 부처님께 올해 처음 제다한 차를 헌공했다.

통도사가 선차 문화 전승에 나선 것은 불교차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통도사는 창건부터 차와 인연이 깊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는 당나라서 귀국 시 '신라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문물, 당, 번, 화개' 등을 가지고 왔다. 이 때 차도 함께 가져왔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혜우 스님이 쓴 〈차와 문화〉에 따르면 자장 율사는 금강계단 주변에서 차를 직접 제다해 매일 부처님께 올렸다. 당시 차를 준비했던 장소가 감로당이다.

〈통도사 사적기〉에는 자장 율사가 조일율사를 화향제자(化香弟子)로 삼았다는 기록도 나온다. 화향이란 '차가 품은 향기'를 뜻해 역사적으로 차공양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도사는 현재 금강계단 뒤 편부터 성보박물관에 이르는 곳까지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통도사는 창건 이후 동을산 다소촌을 만들어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부처님께 차공양을 올리고 수행과 교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동을산 다소촌은 고려시대에 운영됐던 18개의 다소촌 가운데 사찰에 차를 공급한 유일한 장소였고 '차샘과 다소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통도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날 의식 후에 방장 성파 스님은 "차와 선은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은 선차 문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각종 의식에 사용되는 차와 스님들이 수행 중에 필요로 하는 차는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원력 하에 1989년 주지 소임 후 3000여 평의 다원을 직접 조성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다원을 가꾸면서 불가의 차문화를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통도사는 성파 스님의 원력을 이어 앞으로 차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통도사선다연구회'를 구성했다. '통도사선다연구회'는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노전 우현 스님,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사회국장 성오 스님,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 광제사 주지 원행 스님이 주축으로 활동한다. '통도사선다연구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통도사의 선차 이론을 확립하며, 대중 포교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청정한 삶 살겠다" 범어사 보살계 산림

금정총림 범어사가 보살계 수계산림을 원만 회향했다. 불자들은 계를 수지하고 청정한 삶을 발원하며 대승보살이 되어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 121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는 4월 22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과 4월 23일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4월 24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으며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계사 경선 스님의 심지법문, 천수다라니, 노사나불 정근, 보살계 법문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 회향식은 연비의식과 계첩 수여로 마무리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 위촉식

"법음의 맑은 소리 시민들에게 치유의 언어 되길"



부산 풍경소리는 4월 27일 부산 여래사에서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비대면의 시대 새롭게 포교 방향을 이끌어 갈 '부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이 위촉됐다. 풍경소리는 지하철에 걸린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부산 풍경소리(지부장 박동범)는 4월 27일 부산 여래사에서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부산 풍경소리 포교위원들은 향후 포교를 위한 부처님말씀 게시 및 전시 활동에 동참하며 봉사 활동에 앞장 설 계획이다.

위촉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부산 풍경소리 약력소개 △부산 지부장 인사말 △위촉장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풍경소리 신입포교위원은 백은주 불자 외 9명이다.

박동범 부산 풍경소리 지부장은 "풍경소리 포교위원은 법음을 전하며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여래의 사도"라며 "풍경소리를 보시는 분들이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어 다들 밝아지시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풍경소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다. 2001년 부산 풍경소리 준비위원회 구성과 부산지하철공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군법당, 교도소, 포교당, 학교 등에 풍경소리 엽서와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교 하화중생 실천" 일성

창원불교, 제 6대 회장 정인 스님 취임



창원시불교연합회는 4월 22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제6대 회장 정인 스님의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4월 22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6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회장 정인 스님(불지사), 원행 스님(정인사), 도홍 스님(불곡사), 도문 스님(정법사), 월봉 스님(석봉암), 석봉 스님(백운사), 성일 스님(수선정사), 무성 스님(구룡사), 혜명 스님(반야사), 진홍 스님(자비정사)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외 관계자가 동참했다.

취임식은 △개회 △내빈소개 △약력소개 △추대패 전달 △취임사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은 "창원시 통합 후에도 불교사암연합회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역대 회장님의 업적을 살피며 불교의 하화중생 상구보리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임고문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자와 여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축사에서 "좋은 리더십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에 힘찬 기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코로나 종식 기원 삼보일배

"어려움에 처한 생명들 하루 속히 회복하길"



성주사는 4월 24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4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삼보일배는 성주사 입구에서 출발해 깨달음의 길을 돌아 지장전에서 마무리됐으며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박도선 불모학당 회장 외 경남포교사, 신도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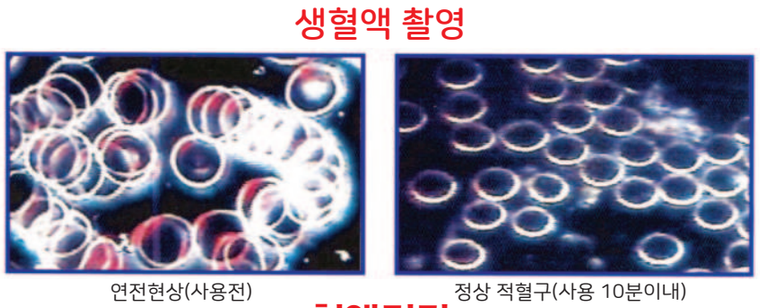
삼보일배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씀 △삼보일배 정진(석가모니 정근)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기념촬영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를 하며 거친 길과 자갈밭 등 여러 난관을 만났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사바세계와 같고 천천히 절을 하며 나아간 것은 세세생생 살아온 업의 틀을 버리는 것과 같다"며 "코로나가 극복돼 모두 옛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에 처한 고귀한 생명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도선 불모학당 34기 회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조속히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며 "몸이 피곤하고 아프지만 일체 모든 생명과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할 수 있어 보람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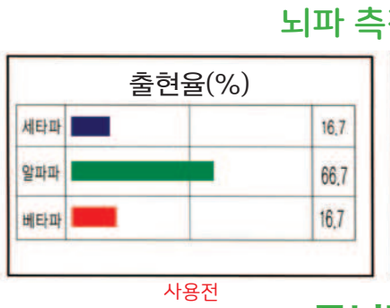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성철 스님 중도 법문, 갈등 해소 원리”

성철사상硏, 4월 24일 춘계 학술연찬회 개최

‘성철스님 불교관’ 주제로 서재영 연구원 중점 발표 비대면 연찬회로 진행 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은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불기 2565년 춘계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학술연찬회에서 서재영 연구원은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성철 스님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중도의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설파한 중도사상은 불교교리나 법문에 국한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낳은 시대의 고를 치유할 처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견(邊見)에 매달리는 중생은 지금도 여전함으로 중도사상은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원장 조병활)이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개최한 ‘불기 2565년 춘계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학술연찬회에서 서재영 연구원(성철사상연구원/성균관대)은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퇴옹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중도사상을 설파하던 시절은 사회적, 교단적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고(苦)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는 진보와 보수, 남한과 북한, 친일과 반일, 비구와 대처 등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물론 근·현대 세계사는 양변의 인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동족상잔의 전쟁과 이념갈등으로 가혹한 고통을 겪었다”며 “편견이 생긴 이유는 자기중심의 아상에 의한 분별심과 집착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백일법문에서 현수법장의 진공사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연찬회는 ‘퇴옹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 2’를 주제로 열렸다. 강경구 동의대 교수가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을 기조발제 했으며,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중도(中道)의 철학적 의미’, 양순애 경북대 박사가 ‘승찬과 성철의 중도 사상 비교’,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현수법장의 교판론과 퇴옹성철의 불교관 비교 연구’,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연학실장이 ‘퇴옹성철의 중도법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행사는 종합토론과 마무리 인사로 회향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술연찬회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발제문과 학술연찬회 영상은 홈페이지(http://www.songch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불교계, 광주불교연합회로 통합

4월 23일 광주불교연합회 · 사암련 기자회견


광주불교연합회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통합을 알리는 손을 맞잡고 있다.

2018년 분리되었던 광주지역 승가단체가 하나로 통합, 광주불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공)는 4월 2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개의 승가단체를 통합하여 ‘광주불교연합회’로 통일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승가단체는 2018년 11월 중소 종단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를 다시 발족하면서 2개의 승가단체로 분리됐다.

이날 통합선언 기자회견에서 도성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 역대 큰스님들의 원력과 광주불교공동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주에 실현하여, 아미타극락정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에 섰다”고 선언했다. 또 스님은 “이제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광주불교가 더욱 활성화 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승가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치유 여행으로 코로나19 우울 극복

김제 모악산 일대 종교문화자원 활용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는 전북 김제시 모악산 주변이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4월 26일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 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관광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김제 치유순례는 금산면에 소재한 4개 문화재를 연계, 금산사~금산교회~수류성당~증산법종교본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평가에서 최고의 콘텐츠라는 호평을 받았다.

2억 원의 예산(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해 이르면 5월부터 종교문화해설사 교육을 통한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진행자로 참여시켜 1박2일과 1일 코스의 종교문화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10여 차례 추진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련사, 경찰서와 청소년 ‘힐링’ 선도

4월 23~25일 ‘힐링 템플’ 진행 선도 · 마음 수양 매월 1회 지속


청련사서 진행된 ‘힐링 인 템플’ 1기 프로그램 모습.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이번엔 지역경찰서와 공동으로 마음수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청소년 힐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청련사는 올해 양주경찰서와 함께 매월 1회 청소년 선도 및 마음수양을 위한 ‘힐링 인 템플(약칭 히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 인 템플은 경찰서가 운영해 온 선도 · 직업교육과 청련사의 마음수양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수양을 돕고 이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첫 프로그램은 4월 23~25일 지역 내 지구대와 경찰서, 청련사에서 1기 참가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첫날 고읍지구대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지역 순찰을 체험한 데 이어 양주경찰서에서 경찰제복 및 장구 소개, 직업교육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청련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전통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련사 체험 프로그램은 타종과 보행명상, 108배 참회정진, 1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도심 속 한적한 사찰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주지 상진 스님은 칠불통계게를 인용한 법문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과 인과의 업 등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靜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온갖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바른 생각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나쁜일 하지 말고 좋은일 하라는 말은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지만, 팔십 노인도 그 실천은 어렵다”며 “잘못된 인과의 업을 바로 참회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오늘 우리의 만남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며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 인연들과 맑고 향기롭고 지혜로운 만남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동길 경정은 “경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선도 · 심리프로그램과 달리, 청련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지는 등 도움이 됐다는 소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힐링 인 템플 2기는 5월 28~30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은 5월 초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광주 봉축탑 점등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4월 28일 5.18민주광장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광주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봉축행사 일정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양군 불자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청양군불자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3일 청양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사진〉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불자연합회 명예총재 현불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예총재 현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점등식을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밝은 구슬을 꺼내어 마음을 밝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中. 티베트도서관, 고서 온라인 공개

2만여 권 이상의 희귀본 무료공개

12세기부터 20세기의 고서 비접촉 고화질스캔 활용해 아카이브 플랫폼 개방진행

김민재 객원기자



2009년, 티베트 도서관의 고서보호센터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연구원은 모든 고서를 보존하기 위해 120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조사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고찰들의 장서각에서 잠자고 있던 고서들이 깨어났다. 4월 25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중국망' 등의 주요 언론들은 라싸에 소재한 티베트 도서관이 온라인을 이용해 그동안 수집, 조사한 희귀 고서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라싸에 소재한 티베트 도서관 고서보호센터는 2009년부터 티베트에 전해지는 각종 고서와 필사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티베트 자치구와 각 성의 티베트 자치현에 소재한 사찰들이 소장한 고서들은 물론, 각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희귀 고서들에 대한 목록작성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포함됐다.

그 결과 4월 21일부터 티베트 도서관은 12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티베트의 고서들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게 됐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책들을 검색, 복사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티베트의 고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된 서적은 2만 원 이상에 달한다.

라싸의 고서 애호가 뀐다 씨는 "아들의 도움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희귀고서 공개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었다. 직접 사용해보니 티베트 도서관의 희귀 고서 공개 포털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고서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티베트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서보호센터의 부소장 팬파체링은 "올해 업로드된 귀중본들은 불경과 논서, 고승들의 전기를 비롯해 역사서들과 개인 문집들까지 망라되어 있다. 특히 고승들의 전기가 주로 수집됐는데 이를 통해 고대 티베트의 사회, 경제, 민속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복잡한 열람신청 절차로 소수의 학자만이 이런 희귀본들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계 모든 이들이 이용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10년이 넘게 조사를 진행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고서들을 찾고, 복원하며,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티베트 도서관의 고서보호센터는 귀중한 고서들을 보전이 취약한 문화자원으로 간주해 비접촉 고화질 스캔 등 첨단 기술을 대거 도입해 도서 훼손을 막았다. 또한 서지학자와 전문가들이 스캔하는 동안 서책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과정을 감독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담당한 전문가들도 공개된 도서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책의 원본 사진을 대조하여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채택했다.

펜파체링은 "희귀 고서 공개포털은 티베트 고서의 온라인 공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티베트 전통문화 고전의 보존과 문화유산을 위한 탄탄한 토대로 비슷한 포털사이트가 많이 개발되어 순서대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귀 고서 공개포털은 지난해 4월 25일 시범운영 후 1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리면서 도서관 홈페이지 사상 최고 접속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美시카고대, '불교와 헌법' 학제 도입

세미나와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美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불교와 헌법간 관계를 고찰하는 학제를 도입했다. 시카고 대학은 4월 19일 교내 언론을 통해 불교와 헌법을 비교연구한 세미나에 대해 보도했다.

'불교와 헌법' 비교강좌는 인류학, 정치학, 종교, 법학 분야 학자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청중에게 발표할 수 있는 워크숍과 학생들을 위한 겨울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세계 10여 개국의 학자, 공무원, 대학원생 등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세미나에는 로스쿨, 신학대학원, 사회과학부 학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과 세미나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다수 불교 국가의 세속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서구시각이 발표됐으며, 서구 법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불교권 국가 학자들의 날선 비판이 함께 이뤄졌다.

워크숍에서 학자들은 출가자의 역할이 헌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 개혁은 불교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와 헌법 연구의 기존 모델이 아시아에서 불교와 헌법의 역학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법학생들의 활발한 불교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카고 법대 3학년 레이첼 레보비츠는 "이 수업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점은 불교 지식이 없지만 법치주의에 관심이 많은 법학생 그리고 법 지식이 전무한 여성 출가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토론한 것"이라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탈서양적인 시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카고 법대 국제법학 긴즈버그 교수는 "최근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출가자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민족주의 출가자들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 탄압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며 "불교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 정신 발현과 정치참여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가는 아시아 국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목소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적인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노승, 37일간 사후삼매 들어

평생 밀교수행에 힘써, 외국인 제자도 다수

의식 남은 삼매 '툭담' 겐뒨 체링 스님 사례 티베트 불교권서 보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 원만한 수행자가 입적 후에도, 미세한 의식이 남아 삼매에 들어있는 현상을 '툭담'이라고 한다. 최근 인도에서 한 달 넘게 툭담에 들었던 스님의 소식이 전해 화제다. 4월 20일 '티베트 넷'은 툭담에 들었던 겐뒨 체링 스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툭담(사후삼매)이란 티베트어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으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사후 경직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티베트 불교문헌에 따르면 툭담에 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낯빛이 돌고 체온이 유지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특히 티베트 불교권의 각 지역에서 여러차례 툭담에 든 수행자들에 대해 보고됐다. 대만과 인도, 티베트 자치구 등지에서 각각 툭담이 보고 됐으며, 인도에서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 수행자 가운데 툭담에 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천명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툭담에 든 시신들에 대한 조사를 허용했다. 지난해 여름 대만에서 28일간 툭담에 들었던 잠빠갸초 스님은 조사 중에 미세한 뇌파가 활동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번에 툭담을 보인 스님은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규뙤사원의 겐뒨체링 스님이다. 스님은 지난 3월 10일, 세납 87세, 법랍 76세로 입적에 들었다. 겐뒨체링 스님은 1935년 동부 티베트의 마르캄 지역에서 태어나 10세에 출가했다. 이후 1959년 중국의 침공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후 평생을 밀교수행과 의례를 보전하고, 중국의 침공으로 흩어진 불교문헌의 정리와 편찬에 힘썼다.



37일간 툭담에 들어간 겐뒨체링 스님.
사진출처=티베트넷

겐뒨체링 스님은 생전 일반적인 티베트의 전통강원 체계를 수학하지 않고, 주석사찰인 규뙤사원의 가풍을 따라 불교의례, 작법, 만다라 조성 등의 밀교수행과 명상에 주력했다. 그 결과 밀교학 박사에 해당되는 '악람빠(Ngaglampa)' 법계를 받았다. 강원체계를 따르지 않고 악람빠를 품수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살아생전 밀교의례에 정통한 스승으로서 다수의 외국인들을 포함해 많은 학인들을 지도한 것으로 전한다.

스님께 수학한 한 일본인 제자는 "스님은 살아생전 '규뙤사원의 가풍을 잇고자 한다면 이 분외엔 선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교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통했던 스승이셨다"고 회고했다.

스님이 입적한 3월 10일, 제자들이 장례절차를 준비하던 중 시신이 경직하지 않고, 체액이나 혈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사후 증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툭담에 들었음이 밝혀졌다. 법구는 생전 주석하던 방의 침대에 누여진 채 수하던 가사로 몸을 덮어뒀을 뿐 일체의 방부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입적에 든 지 37일 후 시신이 굳기 시작해 툭담에서 떠난 것이 확인 되면서 익일 규뙤사원의 다비장에서 다비식이 이뤄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泰불교계, 코로나 사망자 화장 제공

국립불교사무소 화장 명령에 사찰 동참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4월 23일 태국 국립불교사무소(NOB)가 사찰에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서비스 시행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NOB의 나롱 송 아롬 이사는 방콕포스트 인터뷰에서 "NOB는 사찰들과 협력해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마지막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대부분이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례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조차 장례 집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방콕포스트는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있었던 화장에 대한 논란도 소개했다. 화장을 위해 고향에 시신을 운송했을 때 지역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사망한 곳으로 시신을 다시 가져간 사례다.

이에 대해 NOB는 고위험 지역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따라 적절한 장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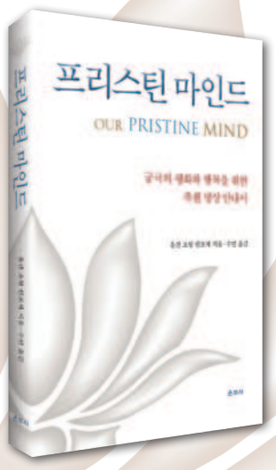
페이스쉴드를 쓰고 탁발 중인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하지만 태국 사찰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없이 따르고 있다. 큰 사찰인 왓파이롬(Wat Phai Lom) 측은 시신을 올바르게 취급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사찰에 따르면 시신들은 누수 방지 비닐로 쌓여 봉인되고 관은 소각로에 넣기 전에 소독된다.

여기에 사찰 종무원들은 소각로로 시신이 가기 전 운송차량과 관을 엄격하게 소독하며, 대중들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등 공공시설도 집중 소독된다. 이미 왓파이롬에서는 5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화장됐다.

노덕현 기자

닝마파 및 족첸 법맥의 지도법사인
올갼 초왕 린포체의 가르침!
프리스틴 마인드



처음 명상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숙련된 수행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점차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명상의 모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북!

우리 삶의 일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의 행복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올갼 초왕 린포체 저 / 수연 역 / 신국판변형 / 328쪽
값 17,000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청량국사화엄경소초』 11~17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①~⑦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 60권, 초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론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포섭하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번역하고,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7권 143,000원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8~5/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당신은 불교를 알면서 하고 있습니까?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중현 스님 지음
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사찰에 오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데 있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이 코로나19로 절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지상 법문집이다.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종교의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지 묻고, 그동안 우리는 지식 중심의 불교를 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한다. 그래서 미래의 불교는 개인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생 규범'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해온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재해석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장 '불교를 안다는 것'은 공(空), 무아(無我), 오온(五蘊), 윤회 등 익숙하게 들어온 19가지 개념을 쉽게 풀고 일상에서 녹아들도록 이끈다. 2장 '불교를 한다는 것'에서는 저자의 체험과 사유로써 펼쳐지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앎과 삶을 잇는 지혜를 스스로 깨치도록 돕는다.

저자 중현 스님은 "'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불교가 위대한 종교인 이유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치는 데 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쳐야만 그것이 불교"라고 말한다.

무등산 증심사에 가면 마음 얻을 수 있다

무등산은 불교적으로 풀면 '모두가 같다', 즉 '일체가 하나다'라는 뜻이다. 무등산 기슭에 증심사가 자리해 있다. 증심(證心)은 '마음을 증득하다, 깨닫다, 맑히다'라는 뜻이다. 무등산 증심사에 가면 세상 풍파와 맞설 든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증심사도 타격을 입었다. 주지 중현 스님은 그야말로 인적이 끊어져 '절깐'이 되어버린 텅 빈 절 마당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다. 절이란 무엇인가? 또 스님이란 무엇인가? 사찰은 사람들이 찾아와 삶의 고단함을 씻고 스님에게서 인생 지혜 하나쯤 받아오는 곳인데, 사람 없는 절이 무엇이고 스님은 무슨 소용일까? '불교는 사찰에도 없고 스님에게도 없다' 중현 스님이 내린 결론이다. 불교는 바로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스님은 절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며, 승복 입은 자신이 할 일은 멀리 있는 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해 절을 찾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법문을 추려 책으로 묶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익히는 끝없는 복습

법정 스님은 '종교 생활은 복습'이라고 했다. 불교에 대한 편견 중 하나는 '불교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종교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 재세 당시부터 하나의 수행체계로, 교리는 실천을 위한 바탕이었다. 이는 25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불교는

안다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
생활서 재 해석한 편안한 불교 교리서
행으로 이은 진정한 앎에 대한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 중현 스님은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두른 수행 시스템, 즉 수행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行)을 닦아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 요소('번뇌'로 총칭되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마침내 유기적인 이타 행위로 발현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수행은 '자신과의 대화'이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신과 대화하며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법정 스님이 말한 '복습'은 이러한 끊임없는 대화, 실천, 연습을 가리킨다. 불교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임을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종교가 사라진 시대,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종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본다. 종교와 과학, 철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래전 종교는 우주의 근원과 생성,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히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규칙과 규범이 만들어졌다. 해석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차츰 철학이 분리되었고, 철학적 담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하였다. 철학과 과학의 발달로 종교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 종교의 신비스러운 외피가 벗겨진 오늘날 종교의 의미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종교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이 고뇌하고 방황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기준을 스스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회 구조가 단순하고, 종교와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틀 즉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다. 또 도덕과 윤리 규범은 매우 자세했으며 개인은 자연스럽게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의 구조가 다양해진 현대에는 그 기준이 모호해졌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준과 상식은 빈약해졌다.

저자는 이 헐거워진 공간을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권유와 지침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인 스스로 생각하고 수용하여 자기만의 바른 규범을 만드는 데 종교가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을 더 풍요롭게,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바깥'을 더 많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오늘날 종교가 할 일이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지금 바로 내 삶에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실용적인 불교 입문서이다.

▲저자 **중현 스님**은?

20대 내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념했고, 30대에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다. 1998년 송광사서 범일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봉암사 송광사 화엄사 석종사 등 제방 선원서 정진했다. 화순 용암사 주지와 〈월간 송광사〉 편집장을 지냈으며, 〈광주일보〉 등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 증심사 주지로 살며 유튜브 채널(증심사)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길고양이의 법문〉 이 있다.

대승불교 기존 통설 뒤엎는 新 학설 제시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그레고리 쇼펜 지음/오다니 노부치요 일역/임은정 한역/운주사 펴냄/2만3천원

인도에서 초기 불교교단과 비구들의 생활 실태를 〈근본설일체유부율〉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대승불교의 기원과 발전, 사원 생활의 실상에 대해 기존의 통설을 뒤엎는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철저히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주장이 흥미롭고 신선하다.

일반적으로 서기 1~5세기는 대승불교가 기존의 부파 불교를 능가하며, 매우 눈부시게 활동한 시대라고 보는 것이 인도 불교사서 정설로 인정된다. 하지만 '과연 대승불교가 당시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진 존재였을까?'라고 의문을 던짐으로써 저자는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일본 오타니(大谷) 대학교서 1996년 11월과 1997년 10월, 각각 2주간에 걸쳐 그레고리 쇼펜 교수가 〈대승불교 흥기 시대 인도의 사원불교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한 특별세미나의 강의록과 강연 원고를, 그의 보좌역을 맡은 오다니 노부치요 교수가 일본어로 번역해 책으로 묶은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1세기부터 4 · 5세기에 걸친 시대의 불교 교단에 대한 상황이나 비구의 생활실태에 대해, 소승의 계율서 중 하나인 〈근본설일체유부율〉에 기초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율장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비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존까지 비구는 3의(衣) 1발(鉢)과 여수낭(濾水囊)과 좌구(坐具) 등 최소한의 물건 이외에는 재산을 사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고가인 장식품까지 소유했음을 명확히 밝힌다. 학습이나 명상에 몰두했을 것으로만 여긴 비구들이 현실에서는 건축 일을 감독하거나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했으며, 사원 안팎에서 실로 다양한 업무에 종사했었다는 것까지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판과 달리 오다니 노부치요의 〈후기〉를 본문 앞에 배치했다. 후기에는 저자인 쇼펜 교수 개인에 대한 이해와 그의 불교학 방법론과 대승불교에 대한 견해가 소개돼, 이에 대해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다면 훨씬 쉽고 재미있으리라고 한국 역자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에서의 불교 전개를 개괄하면서, 중국불교에 대한 자료가 오히려 인도 초기 대승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시도에 너무 큰 오해와 피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 책은 〈근본설일체유부율〉을 중심으로 당시 교단과 비구들의 실제 생활을 자세히 밝혀냄으로써 실로 인간 냄새 나는 비구들의 실제 일상생활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에 의해 제기된 '대승불교 불탑 교단 기원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아울러 '대승불교 주변 지역 기원설'을 통해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적어도 4세기 전까지는 명확한 교단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학설을 제시하는 등, 대승불교 기원에 있어 기존의 정설을 반박하고 획기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는다. 김주일 기자

▲저자 **그레고리 쇼펜**은?

1947년 미국서 태어나 미국 블랙힐스(Black Hills)주립대학(학사, 미국문학),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대학(석사, 종교사), 호주국립대학(남아시아 · 불교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미시간대학, 워싱턴대학, 텍사스(오스틴)대학,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대학,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를 지냈으며, 전공은 범어 · 티베트어, 불교학이다.

말기암 · 환자 · 암 · 소멸 · 임상실험 후원비 도움 주실 분

허리 · 무릎 · 목 · 엉치 · 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부항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1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 해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NAVER 척추근육강화기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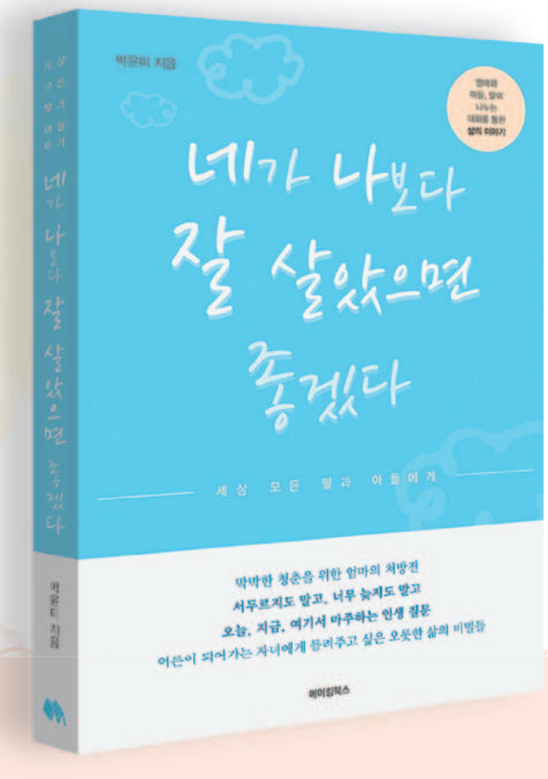


소자본지점 모집

예약 010-6575-7866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우주 삼라만상 암각화에 모두 있어”



옻칠로 재현한 울주 반구대암각화 위에서 제작자인 성파 스님이 도판을 보고 있는 모습.



‘천전리 각석’을 실제 크기의 옻칠로 재현한 성파 스님.

성파 스님, 옻칠로 울주 암각화 재현

4월 24일부터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마당에 전시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두점 연못에 띄워
“사각 연못 자연 액자”…최초의 사찰 수중 회화전

양산 통도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나라 역사를 대략 5천 년으로 잡는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훨씬 전인 7천 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 암각화는 우리 한국 미술의 원조이자 인류 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죠.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대자연에 그려진 이 암각화를 보면서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는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지금은 흔한 로프줄이나 사다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절벽에 저런 그림이 새겨질 수 있었는지 그 자체가 경이로울 뿐입니다. 내용도 그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가 그대로 그림으로 기록돼 있죠. 제가 암각화를 처음 본 것은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분쟁이나 갈등도 없었을 그 시대의 생활상을 유추해 세계의 최고 걸작인 우리 자랑스런 문화를 예술로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4월 24일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주석처인 통도사 산내암자 서운암(감원 성연) 경내 장경각 앞 얕은 인공 연못에는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각석’을 그린 대형 수중 옻칠 작품 2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마치 뗏목을 띄운 형상이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대곡천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제작 시기가 기원전 3500년~7000년으로, 그 추정 연대의 폭이 넓다. 절벽에 새긴 그림인 반구대 암각화는 사람과 호랑이, 거북이 등 당시 신석기인들의 수렵 채집 생활이 잘 묘사돼 있다. 특히 고래가 많아 당시 이미 그물과 목책으로 고래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전 세계서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971년 발견됐지만, 그보다 앞선 1965년 반구대 암각화 앞을 흐르는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생기면서 해마다 우수기에는 암각화가 물에 잠기면서 훼손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댐 수위조절을 하면 시민 식수가 모자란다는 반대의견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존 해법을 찾지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천전리 각석도 국보 147호로 지정돼 대곡천 암각화군을 이루고 있고, 이곳은 지난 2010년 1월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옻칠 대형 작품은 방장 성파 스님이 삼베에다 옻칠한 건칠 기법과 나전칠기 공법으로 3년여에 걸쳐 완성했다. 가로 8m 세로 4.5m 크기로, 반구대 암각화 등과 똑같은 실물 크기다. 보고 있노라면 옻칠 특유의 중후한 질감이 묻어났다.

성파 스님은 “50년 전 암각화가 발견됐을 때 탁본을 떴는데, 지금 가서 다시 보면 마모돼서 원형보존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서 암각화의 마모된 부분을 컴퓨터로 원형 복원해 발간한 책을 보면서 비례에 맞춰 1:1 비율로 대형 옻칠 판을 만들어 자개를 붙였죠.”

반구대 암각화는 옻칠판 위에 자개 조각으로 선사시대 고래와 호랑이, 선사인과 그물망 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천전리 각석 역시 자개 조각으로 기하학무늬나 문자를 만들어 붙였다. 새까만 옻칠판을 전통 방식으로 직조된 두꺼운 삼베를 겹겹이 쌓아 만든 뒤 그 위에 얇게 간 조개껍데기를 여러 형태로 박아 넣는 나전칠기 공법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금까지 사연댐 물에 잠겨 훼손 논란을 빚은 반구대 암각화가 최근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침수를 막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치가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연못에 설치된 반구대 암각화 작품이 사연댐에 실제로 잠겼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에 잠긴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옻칠 판에 고래와 사냥꾼, 뭍·바다 동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린 반구대 암각화의 장관이 영롱한 자개 이미지로 수놓아져 빛을 뿜어내고 있다.

많은 오브제중에서 스님은 왜 하필 공정도 까다로운 옻칠을 택했을까? 그 물음에 성파 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합천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절에서 만든 옻 냄새에 익숙했어요. 특히 사찰에서 많이 사용해 ‘꿈에서 스님만 봐도 옻이 오른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칠 문화를 꽃 피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숭유억불의 조선 시대부터 칠 문화가 쇠퇴했어요. 옻은 그림을 그리는 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바탕 재료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미술 재료죠. 여기에다 삼베를 켜켜히 쌓을 때마다 열 차례 넘게 옻칠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물 속에서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형이 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야외 대형 프로젝트는 성파 스님의 장벽을 뛰어넘는 선의 기지와 예술적인 큰 상상력에서 비롯됐다. 즉 사각 연못이 대형 액자가 되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눈비가 오거나 낙엽이 져서 연못에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대자연의 화폭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파 스님은 이번 전시에 만족하지 않고 올 가을쯤 서운암 뒤 이팝나무 숲에도 수조를 만들어 그동안 작업한 옻칠 그림들을 물에 담가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숲속 수중 전시에 도전장을 낸 셈이다.

성파 스님은 “1년내내 전시 하다보면 구름, 달, 별, 해 등이 물에 비치겠죠. 연못 안 옻칠 작품이 인위적이라면 자연의 섭리와 변화들이 화폭에 보태지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관람객들에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 서운암서 한국적 국가대표 미술 재료인 ‘옻액’을 활용해 ‘칠화’(漆畵) 작업을 한다. 옻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옻액’에 석채, 흑연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직접 옻 물감을 만든다. 전국 사찰 중 유일하게 칠공방이 있는 이 곳에서다. 그래서 서운암은 우리나라 사찰 옻칠 문화가 계승되는 총본부인 셈이다. 성파 스님은 옻칠 작업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칠화’로 영역을 확대했다. 칠화는 내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보적 기법이다. 유화는 여러 번 덧칠해 마지막에 칠하는 색을 보여주지만, 옻칠화는 덧칠한 부분을 깎아내 속을 보여준다. 어떤 부분을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성파 스님은 “표면을 버리고 이면을 드러내는 기법은 옻 물감 밖에 없다”며 “옻 물감은 화려하면서도 중후한 맛이 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생생히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가로 8m 세로 4.5m, 반구대암각화 실물 크기로
옻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물 속에서 썩지 않아
숲에 수조 만들어 옻칠그림 물에 담가 전시 예정

성파 스님이 칠화를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이다. 우리 전통 산수화와 옻칠 그림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국의 일류 대가들 작업실을 10여 년간 왕래하고 머물면서 일일이 사사해 오늘날 옻칠 민화와 건칠 설치작업, 암각화 재현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이후 성파 스님은 칠 문화 부흥을 위해 제자를 양성중이다. 공방에서 5기 50명이 수료했고 그 중 7명이 옻칠문화재 수리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옻칠로 그리는 민화 과정도 벌써 3기가 수료했다. 그런데 옻칠을 배우려는 스님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한편 성파 스님은 196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9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 선원서 정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제5·8·9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옻칠불화, 민화 등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1983년 옻을 이용한 개인전을 처음 연 이후 국내외에서 전통 옻과 불교미술을 접목한 전시를 10여 차례 열었다. 팔만대장경 각 한 벌을 도자판 두 벌로 만든 16만 도자대장경을 21년간 작업해 2012년 장경각에 봉안해 교단과 문화재계를 놀라게 했다. 2014년에는 옻칠 물감으로 그린 민화를 처음 선보여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수행정진하고 있다.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에르코스 포행화
ercohs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보존 사각지대 '불단' 재조명 초석 놓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불단 일제조사' 보고서 발간

지난해 첫 일제조사 진행해
전북 · 전남 사찰 15곳 대상
기록화 · 보존과학 조사추진
조사통한 문화재 지정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전각 내 불상 아래에는 불단(佛壇)이 있다. 부처님을 바닥에 두지 않고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불단은 수미단(須彌壇)이라고도 한다.

불단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문양으로 전각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눈길이 가는 사찰 목공예의 진수지만, 그동안은 전각의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전각과 불상, 불화에 비해 불단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보존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불단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4월 30일 첫 번째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보물)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익산 숭림사 보광전(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보물)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등 전북 · 전남 지역 사찰 15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진행됐다.

연구소는 사찰 불단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2D 디지털 촬영 · 3D 스캔, 정밀실측 및 도면 작업), 보존과학 조사(손상현황지도 · 수종 및 성분 분석 · 보존환경 분석), 안전점검 등을 병행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각 사찰 전각 불단의 현황을 비롯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재와 장식재 등 각 부재의 재질 분석 및 보존과학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보존현황을 파악해 손상현황지도를 작성하고 현재 불단의 변위 및 단면 분석을 통해 안전도를 평가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불단.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찰 불단에 대한 일제조사가 지난해부터 진행돼 올해 첫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전북 · 전남 사찰 15곳 불단의 정밀조사 결과가 담겼다.

처음으로 불단 내부와 구조에 대한 기록화 조사를 추진한 것도 큰 성과다. 불상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내부 구조재 및 결구 등과 외부 표면을 장식하는 장식재를 구분해 조사했으며, 각 부재별 수종을 분석해 향후 보수 · 수리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단의 '전면-배면-좌측면-우측면'에 대한 이미지를 수록하고, 3D 스캔 자료를 비롯해 2D 이미지를 병합한 포토그래매트리 자료를 함께 게재해 불단의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불단의 도면을 작성해 정밀 제원사항을 기록하고, 불단에 새겨진 각종 문양 이미지를 상세히 수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불단 조성의 변화를 추정한 개요도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이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불단의 원형은 대좌로 신라 · 고려시대 불상은 '경주 석굴암 석굴'과 같이 불단없이 불상 대좌에 봉안했다. 대좌에 앉혀진 불상은 불전(佛殿) 중앙에 있었고, 당시 법회도 불상 주변을 돌며 행하는 요잡례(繞匝禮) 형태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가 아는 불단과 불상 배치가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다. 조선시대에서는 불상 앞에서 배례(拜禮)하는 예불 방식이 발달하고 법회가 많아지면서 불전 내 공간 활용도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불상과 공양물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불단이 설치되고 예불 장소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불전 후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조선 초기에는 불단을 전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15세기에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불단'과 같이 불상 봉안, 공양물 진설 등을 위한 불단이 등장한다"면서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재건한 불전에서 모두 불단이 설치되는 점을 보아 16세기에 이미 불단이 불전 내 통상적인 구조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은 올해에는 전남 지역 4개 사찰, 부산 · 경남 지역 7개 사찰을 대상으로 불단 13점과 장엄구 13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형 기록화, 보존과학 조사 등이 이뤄진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찰 불단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찰 목공예의 전통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발간된 보고서를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3m 화엄사 삼신불좌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4월28일 지정예고
현존 유일 초대형 삼신 불상
불영사 불연 등 보물 예고돼

현존 유일 3m 초대형 삼신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되는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1635년(인조 13) 당대 유명한 조각승인 청헌(淸軒)과 응원(應元), 인균(印均)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 불교조각이다.


보물서 국보로 승격 ·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최근 발견된 삼신불의 복장유물 등 관련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1634년부터 1635년 삼신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련 기록에는 후원자, 참여자들의 실체가 담겼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재위 1567~1608)의 8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명을 포함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을 갖춘 대좌(臺座)와 팔각형 목조대좌에 다리를 서로 꼰 결가부좌자세로 앉아 있다.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선이 굵게 처리된 조각솜씨로 인해 중후한 느낌을 더한다.

문화재청은 "17세기 제작된 목조불상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조각으로 유일하게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불로 표현된 삼신불 도상이라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 화원(畵員)으로 추정되는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등이 참여해 조성한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다. 불교목공예의 일종인 불연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 지정예고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656년(효종 7) 만들어진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작품이다. 이 일군의 불상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의 통솔 아래 조각승들이 1~4명씩 분담해 제작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울진 불영사 불연'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보 신원사 괘불, 첫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博, 부처님오신날 맞아 괘불展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 <사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괘불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한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했던 사찰로 잘 알려진 공주 신원사의 대표 성보문화재인 '공주 신원사 괘불'이 공주를 떠나 서울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주 신원사 괘불은 전체 높이 10m, 너비 6.5m, 무게 100kg 상당의 규모로 350여 년 전인 1664년(현종 5)에 완성됐다. 조성된 지 수백 년이 훌쩍 넘었지만, 도상이 매우 화려하다.

열아홉 폭의 삼베를 이어 만든 대형 화폭 중앙에는 노사나불(盧舍那佛)이 있다. 화려한 보관과 반짝이는 구슬, 다채로운 무늬로 장식했으며, 주변에 펼쳐진 찬란한 광명은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과 부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원사의 역사와 괘불을 상세하게 조사한 도록도 발간했다. 도록에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 짙은 색으로 가려진 장황 무늬와 화승이 고쳐 그린 흔적이 확인된 사실과 신원사 대웅전에 봉안된 근대 불교회화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7



▶ 18회 예고
탁실라에서 돌아온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왕에게 부왕 수시마가 대신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한다. 놀란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즉시 파견하라고 명령한다. 아쇼까는 자신의 아들 꾸날라가 태어난 날 탁실라로 떠난다.

탁실라 부왕이 된 '수시마'

수시마는 빠딸리뿌뜨라성에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했다. 반란군을 진압할 때 자신을 도왔던 탁실라왕의 두 동생 망갈라로이와 삐띠로이가 측근이 되어 모든 정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는 하루 종일 수시마 좌우를 지키며 조언해주었다.

"부왕이시여, 흉년이 들었으니 성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부왕이시여, 성 밖의 목동들이 도둑들에게 양과 염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 도둑들의 약탈을 막아주십시오."

"군사를 보내 도둑을 잡아 벌하시오."

망갈라로이 형제는 조언을 계속했다.

"술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성민들에게 술을 하사하시면 부왕님을 더욱 믿고 따를 것입니다."

"맞소. 술이란 사람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명약이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고통을 잠시 잊고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법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는 성민들의 불만을 술로 해결하려고 했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친위대장은 두 형제가 수시마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늙은 친위대장은 빠딸리뿌뜨라에서부터 수시마를 호위했던 선봉대장 출신이었다. 그 역시 망갈라로이 못지않게 수시마가 신임하는 대신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잠시 궁을 나가자, 친위대장이 수시마에게 다가갔다.

"부왕이시여, 대신들의 보고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현장을 나가보시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대신은 때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마는 충언하는 친위대장을 물리치지 못하고 난처해했다. 친위대장을 지그시 쳐다보던 수시마가 한 마디 했다.

"이제, 친위대장도 흰머리가 많구먼.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는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검었는데."

"흰머리는 세월이 주는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소장은 훈장 값을 하고 있는지 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고지식해서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족 같으니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오."

"부왕이시여, 소장을 가족같이 생각하신다니 더욱 충성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보고할 것이 있다니 말해보시오."

늙은 친위대장은 잠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다. 망갈라로이 형제에게 모든 정사를 맡겨버리다시피 한 수시마가 안타까워 탁실라를 몇 번이나 떠날까 하고 생각했지만 빈두사라왕이 떠올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탁실라로 향할 때 성문 밖까지 나와서 부왕 수시마를 잘 보좌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고를 받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수시마가 짧게 보고하라는 몸짓을 했다. 그럴 때마다 수시마는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탁탁 쳤다. 그러나 친위대장의 보고는 길어졌다.

"망갈라로이 대신이 세금을 감면하라고 했지만 공평하게 집행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망갈라로이 대신은 탐욕스럽습니다."

"어찌 그렇게 짐작하오?"

"전 탁실라왕 때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성민들에게 뒤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확인을 잘하면 될 일이 아니오?"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출신이 아닌 소장이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망갈라로이 대신을 쉬게 하고 이제는 직언하는 충신을 써야 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하오.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부왕이 되기 싫소."

"정사에 임하실 때는 자애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얼음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그래야 왕명이 서는 것입니다. 아버님인 대왕님을 거울로 삼으십시오."

"친위대장이여, 대왕님의 잔인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오."

수시마는 빈두사라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빈두사라가 신하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또 보고하겠습니다. 삐띠로이 대신이 목동들에게 군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목동들을 위협해 자릿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보내지 마십시오. 목동들은 멀리 풀을 찾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목동들이 떠나면 성민들은 우유와 양털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을 달래보겠소. 또 무슨 보고가 있소?"

"피곤하시지만 계속 보고하라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민들에게 술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성민을 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좋은 정치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우물을 많이 만들어 성민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술보다는 마실 물이 더 중요하겠지요. 당장 대신을 불러 지시하겠소."

친위대장은 수시마의 눈치를 보며 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친위대장의 보고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친위대장을 경계하는 눈빛만 더 날카로워졌다. 망갈라로이 형제와 친위대장이 갈라서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그 전에는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딪치지 않고 웃음이 오갔던 것이다.

그런데 흙바람이 하늘을 뒤덮은 날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와 친위대장이 부왕 수시마 앞에 모였을 때였다. 망갈라로이 형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삐띠로이가 말했다.

"부왕이시여, 외롭지 않습니까?"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2년이 다돼 가고 있소. 때로는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오."

삐띠로이에 이어 친위대장이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고 가는 것은 오직 대왕님의 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왕님의 마음은 바위 같아야 합니다."

"소장의 말이 맞소. 그러니 부왕님을 우리가 더 보좌하자는 것이오."

"어떻게 보좌하자는 말씀인가요?"

망갈라로이도 한 마디 했다.

"보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마도 삐띠로이 대신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소만 부왕님께서 여성이 그립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한 말인 듯하오."

"신하와 군사들만 오가는 궁이 답답한 것은 사실이오."

수시마가 망갈라로이 형제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삐띠로이가 말했다.

"부왕이시여, 성민 중에 방정한 여성이 있습니다. 부왕님께서 반드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늙은 친위대장은 놀라고 말았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추천한 여성이 궁에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친위대장이 망갈라로이의 말을 잘랐다.

"당치 않은 말씀이오. 빠딸리뿌뜨라에는 부왕님과 미래를 약속한 부인이 계시오. 부왕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망갈라로이 형제가 당황하자 수시마가 중재했다.

"대신이 나를 욕되게 할 의도가 어디 있겠소. 나를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겠지요. 그러니 친위대장이 심한 말을 한 것이오. 대신에게 사과를 하시오."

"부왕이시여, 소장은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잠시만 궁을 물러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수시마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친위대장을 내보냈다. 그런 뒤 망갈라로이에게 말했다.

"장수라서 말을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니 이해하시오. 친위대장도 나를 위한 충정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오."

"친위대장이 소신의 말을 왜곡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부왕님께서 저의 충정을 믿어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수시마 앞에서 도량이 넓은 듯 말했지만 망갈라로이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친위대장 역시 망갈라로이 형제를 예전과 다르게 주시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감시했다. 부하를 시켜 그들이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을 보고하게 했다. 세금감면이란 미끼와 목동의 자릿세도 부하들이 밝혀낸 그들의 비리였다.

망갈라로이 형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위대장에 대한 허물을 찾기에 모든 힘을 쏟았다. 친위대장에게도 군사들이 원망하는 약점은 있었다. 탁실라의 토착군사들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군사들보다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만이 컸다. 망갈라로이가 수시마에게 보고했다.

"탁실라 군사들은 빠딸리뿌뜨라 출신군사보다 헐벗고 굶주리어 원성이 큽니다."

"배고픈 군사가 있다는 말이오?"

"군관들은 배부르고 군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친위대장 소관이 아닌가요?"

"친위대장이 군사들의 힘을 합쳐도 모라랄 판에 편을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마는 직언만 하여 자신을 불편하게 해온 친위대장을 이번 기회에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고 싶었다. 친위대장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미모의 여인을 잠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고, 대신들과의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았다.

때마침 수시마에게 기회가 절로 찾아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빈두사라가 보낸 특사 일행이 왔다. 수시마를 위로하고 탁실라의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수시마는 특사만 궁으로 은밀히 따로 불러 빈두사라왕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왕님께 꼭 전해주시오."

"돌아가서 직접 전하겠습니다."

"대왕님의 안부를 묻는 편지이지만 비밀로 해주시오."

그러나 수시마가 특사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다. 안부를 묻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친위대장을 소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망갈라로이 형제와의 암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곁에서 멀어졌다.

한 달 후.

친위대장은 소환장을 받고 몇 명의 군관만 데리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갔다. 친위대장은 빈두사라왕을 만나 사실을 보고했다. 빈두사라는 수시마에게 실망한 나머지 낯빛이 변했다. 그만큼 수시마를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가 친위대장에게 물었다.

"어찌 했으면 탁실라가 안정이 되고 수시마가 나의 뜻대로 탁실라를 통치하겠소?"

"대왕이시여, 망갈라로이 형제를 수시마 부왕의 눈을 가린 죄로 참수해야 하옵니다. 화근을 없애면 수시마 부왕은 성민들이 원하는 통치를 할 것이옵니다. 탁실라에 예전 같은 소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화근은 빨리 뿌리 뽑아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오." "소장의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대장이 다시 탁실라로 가시오."

"소장보다는 더 적합한 인물이 있사옵니다."

"누구요?"

"수시마 부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아쇼까 왕자님이옵니다."

"어째서 그렇소?"

"코끼리경주대회에서 보았사옵니다.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형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보고 아쇼까 왕자님의 마음을 알았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러하오. 대장이 아쇼까에게 탁실라로 떠날 준비를 하도록 전하시오."

친위대장은 곧바로 빈두사라 궁에서 나와 아쇼까가 머무는 별궁으로 갔다. 친위대장은 자신이 추천했지만 아쇼까 왕자의 반응이 궁금했다. 빠드마바띠와 결혼한 아쇼까는 왕자별궁에서 나와 작은 별궁에 살고 있었다. 〈계속〉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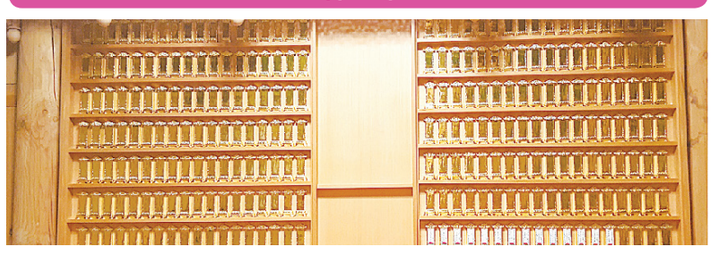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⑨ 법안종의 전래와 전개

▶ 한줄 요약
고려 초기 광종의 계획 아래 수입된 법안종은 선종이면서도 교학의 이치를 널리 활용하여 선법을 현창했다.



교학 수용해 선법 현창한 법안종

1. 고려 초기 선종의 상황

고려 태조 왕건은 불교를 깊이 존숭하고 외호하였다. 그 결과 불법이 더욱 융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고려 초기에 지속되었는데, 제3대 정종(定宗) 이후에는 선종과 교학이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광종(光宗)에 이르러서 국가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사와 왕사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무렵에 오대에서 크게 발흥했던 법안종(法眼宗)이 광종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고려에 수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불법의 순수한 전개보다는 복합적인 정치상황이 어우러진 결과이기도 했다.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에 걸쳐서 한국의 선법은 당으로부터 전승과 더불어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법은 고려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법안종을 비롯한 선종오가의 수입과 더불어 다시 번영을 구가하는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 가운데 법안종의 경우는 시대가 약간 앞선 조동종(曹洞宗)의 수입에 뒤이어 고려 초기 선종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였다.

그 까닭은 법안종이 선종이면서도 제반의 교학을 수용하였고, 또한 정치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크게 풍미할 수 있는 상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안종은 당 말기와 오대 초기에 걸쳐 형성된 선종오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고려에 전승되면서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수입된 것은 정치적인 측면도 결부되어 있었다.

2. 법안종의 형성

중국 선종사에서 설봉 의존(雪峰 義存, 822~908)의 제자인 현사 사비(玄沙 師備, 835~908)는 설봉의 종풍을 적확하게 표현하여 널리 펼쳤다. 그리고 현사의 제자 나한 계침(羅漢桂琛 , 867~928)은 보청(普請)과 작무(作務)하는 가운데서 불법을 구현하였으며, 그 제자로 법안 문익(法眼 文益)을 배출하였다.

법안 문익의 속성은 노(魯)씨이고 여항(餘杭) 출신이다. 7세에 속가를 나와 신정(新定)의 지통원(智通院)에서 삭발하였고 전위 선백(全偉 禪伯)을 의지하여 공부하였고, 이듬해 개원사(開元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명주 육왕사의 율사 희각(希覺)에게 참문하여 공부하였다. 이후 남방으로 유행하여 복주 장경원의 혜릉(慧稜)에게 참문하였다. 나아가서 성의 서쪽 지장원(地藏院)에 주석하며 나한 계침의 가르침을 받았다. 대오한 이후에 법진(法進) 등과 동행하면서 임천(臨川)에 이르렀다. 그 곳 주목(州牧)의 청에 응하여 숭수원(崇壽院)에 주석하였는데, 도성(道聲)이 더욱 높아져 사방의 운수납자들이 몰려들어 그 회하는 항상 1000여 명을 상회하였다.

이후 남당(南唐) 이변(李昪)의 초청에 의하여 금릉 보은선원(報恩禪院)으로 옮겼다. 그 이후에 청량사(淸涼寺)에 주석하였는데, 금릉에서 세 차례 대도량에 앉아 조석으로 설법하여 그 선풍이 제방에 법안종풍으로 널리 알렸다. 958년 74세로 입적하였다. 득법제자 83인 가운데 천태 덕소(天台 德昭, 891~972)가 있고, 천태 덕소의 제자로 영명 연수(永明 延壽, 904~976)가 있다. 법안 문익이 저술한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은 940년부터 95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의 폐풍을 지적하여 그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안 문익 · 천태 덕소 · 영명 연수로 계승되는 이들 종풍은 법안종으로 현창되었다.

문익이 거양한 선풍의 성격은 선교융합(禪敎融合)으로 알려져 있듯이 법안종은 교학의 이치를 널리 활용하여 선법을 현창하였다. 특히 문익은 석두 희천(石頭 希遷, 700~790)의 명과 암(明暗) 그리고 이(理)와 사(事)가 상즉하는 묘용의 이치를 잘 해석하였고, 화엄의 원리(圓理)를 설하여 삼계유심(三界唯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법유식(萬法唯識)의 도리로 깨침을 얻었으며, 유식학의 교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문익을 계승한 천태 덕소는 천태교학 및 정토교학을 크게 원용하였고, 제3세인 영명 연수도 정토교학을 비롯한 유식과 제반의 교학에도 널리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법안종풍은 선종이면서 제반 교학을 수용함으로써 한때 선종의 정체성이 희석되었지만, 이후로 송대에도 면면히 유지되어 갔다. 그 후손에 해당하는 도원(道原)은 〈경덕전등록〉을 편찬하여 법안종과 임제종 중심의 전등사서를 출현시키기도 하였다.

광종 계획 아래 법안종 수입
중국 선진 문물 수입 의도도
법안종 조사 어록 거의 없어



법안종 개산조 법안 문익 선사. 사진제공=정운 스님

3. 법안종풍의 전승과 전개

이와 같은 중국 법안종이 해동에 전승된 것은 고려인으로서 법안 문익의 제자인 영국사의 도봉 혜거(道峯 慧炬), 원공국사 지종(智宗, 930~1018), 영명 연수와 도봉 혜거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연 국사 영준(英俊, 932-1014), 영명 연수의 제자인 진관 선사 석초(釋超, 912~964) 등 다수의 선승에 의거하였다.

고려국의 광종대왕이 영명 연수의 언교를 받고 사신을 보내서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이에 고려의 승려 36명을 보내 연수의 가르침을 받고 고려로 귀국하여 그 가르침을 홍포하게 하였다. 광종의 이와 같은 조처는 스승인 연수에 대한 보은이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고려에 수입하여 국가의 문물을 일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때문에 그 형식은 제자의 예를 취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와 사상과 이념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것이 법안종풍을 수입했던 유학승들과 의기투합이 되어 마침내 고려 초기에는 법안종풍이 풍미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지종(智宗)의 자는 신칙(神則, 神明)이고, 성은 이(李)씨로서 전주 출신이다. 8세에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였다. 홍범 삼장(弘梵三藏)이 도래하여 사나사(舍那寺)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찾아가서 삭발하고 광화사(廣化寺)의 경철(景哲)에게 참문하였다. 후주(後周) 현덕 6년(958)에 중국에 들어가 구법할 뜻을 밝히자 광종대왕이 듣고서 격려해 주었다. 이에 바다를 건너 오월(吳越)에 들어가 먼저 영명사(永明寺)의 연수(延壽)에게 참문하였다.

연수가 지종에게 물었다. "법을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무슨 다른 볼일이라도 있어서 온 것인가?" 지종이 답했다. "법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법은 본래 둘이 아니어서 사바세계에 편만한데 어찌 애써서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는가?" "이미 사바세계에 편만하지만 제가 왜 애써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에 서로 의기투합하여 지종은 연수로부터 심인을 얻었다. 준풍 2년(961)에 국청사(國淸寺)로 가서 정광(淨光)에게 참례하고 〈대정혜론(大定慧論)〉과 아울러 천태교학을 공부하였다. 송 태조 개보 원년에 승통이었던 찬영(贊寧) 등이 지종을 청하여 전교원(傳敎院)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의하게 하였다. 개보 3년(970)에 귀국하자, 광종대왕이 대사로 대우하고 연청하여 금광선원(金光禪院)에 주석토록 하고 중대사(重大師)를 가하였다. 경종(景宗)이 즉위하여 삼중대사(三重大師)에 제수하였다. 성종의 시대에는 적석사(積石寺)에 주석하였고, 목종 시대에는 광천편소지각지만원묵선사(光天遍炤至覺知滿圓默禪師)라는 호를 가하였으며, 불은사(佛恩寺) 및 외제석원(外帝釋院) 등에 주석토록 하였다. 현종이 청하여 광명사(廣明寺)에 주석토록 하고, 법칭을 적연(寂然)이라고 하였고, 1013년에는 현종이 지종을 왕사에 책봉하였다. 이듬해 1014년에 보화(普化)라는 호를 가하였다. 1018년에 원주 현계산 거돈사(居頓寺)에서 89세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원공(圓空)이다.

한편 〈동국승니전〉에 의하면 도봉산 혜거 국사는 법안 문익의 제자이다. 혜거가 발심을 하고 정혜(定慧)로 수행하고 있을 때 고려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 귀국하도록 하였다. 귀국하여 황제의 예우를 받았는데, 궁궐에서 법을 청하자 상당설법을 하였다. 혜거 국사가 황제의 옥좌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옥좌를 그대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만약 그대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도리를 말하는데, 이 옥좌는 왜 그것을 모르는가."

이들 법안종의 수입자들은 국내의 문헌과 중국의 선문헌 및 국내의 비문 등에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이지 그들의 어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따라서 종파로는 법안종의 수입자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몇몇 문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국한되어 있다. 가령 연수와 지종의 문답에서, 불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느냐 하는 문답은 짐짓 그 의도가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질문한 것이었다. 너무나 식상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와 같은 성격의 질문으로서, 불법 및 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하는 문답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지종은 이미 국내에서부터 안목이 구비된 선사인 까닭에 매우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불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답변한다. 그 이외에 보다 분명한 답변은 없다. 그러나 연수는 그것으로는 흡족하지 않았다. 이에 사바세계 어디에도 불법이 항존하고 있는데 굳이 찾아온 이유를 재차 묻는다. 지종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바로 그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한다. 직접 언설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불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체득해야 비로소 자기의 불법이 되는 까닭에 스승에게서 불법을 추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자 이제야 연수는 그 말을 긍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문답의 내용은 특별히 법안종에게만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

도봉 혜거의 법어도 마찬가지이다. 옥좌는 왕을 상징한다. 따라서 옥좌를 안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대단히 불경스러운 답변이 되고 만다. 이에 옥좌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대중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혜거는 이미 대중이 침묵하고 있는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대중을 나무라는 말을 돌려서 옥좌에다 부여해준다. 옥좌는 말을 하지 못한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옥좌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령 이러쿵저러쿵 옥좌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은 그 도리를 말하는데, 이 옥좌는 왜 그것을 모르는가.' 하는 말로 결론을 짓는다.

이들 선문답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선종계에서 크게 유행한 조사선풍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지종이 보여주었던 문답과 혜거의 상당설법 사이에는 아무런 간극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보편적인 선사상의 전개가 이미 고려의 선종계에도 고스란히 전승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국대 HK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⑨ 미국서 만난 독특한 고려불화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는 고려불화 2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원각경변상도〉이다. 〈원각경〉의 한 장면을 도상화한 이 작품의 주존은 노사나불이다. 고려불화의 다채로운 주제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노사나불, 법계를 장엄하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Boston Art Museum)에는 독특한 주제의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가 있다. 총 2점으로, 한 점은 지금 이 지면에 소개하는 〈원각경변상도〉(그림1)이고, 또 한 점은 〈치성광여래왕림도〉이다. 약 15년 전, 필자가 직접 조사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당시 보스톤미술관 관장이 직접 유물창고에 들어가 이들 작품을 꺼내 보여주었던 기억이 난다. 해외 여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월관음도〉 또는 〈지장보살도〉 등 흔히 보는 주제의 그림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특이한 주제의 특이한 도상의 작품은 보관 상태 역시 놀랄 만큼 양호했다.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고, 〈치성광여래왕림도〉(추후 연재에 소개 예정)는 천공의 온갖 별자리가 부처님으로 변신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들 작품들로 인해 "고려시대 불교미술이 참으로 다채로웠구나"라고 감탄한 바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구나"라는 직감도 떠올랐다.



그림①

노사나불, 대통합의 존상

〈원각경변상도〉의 화면 한 가운데에는 노사나불이 커다란 깨달음의 둥근 빛을 비추며 앉아 계신다. 몸에서 발산하는 신광(身光)과 머리에서 발산하는 두광(頭光), 그리고 다시 한 번 광대한 원광(圓光)이 화면 중심에 크게 자리한다. 노사나불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다.(그림2) 본래 부처님은 귀걸이 · 목걸이 · 보관 등 장식을 하지 않는다. 간단히 법의(法衣) 하나만 걸치고, 육계보주와 백호로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부처님 중에서도, 유일하게 화려한 장엄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계신데, 바로 노사나불이다. 그래서 노사나불을 관세음보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보살처럼 장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나불과 관세음보살은 '장엄의 격'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고려시대 본 작품의 주존으로 등장하는 노사나불을 필두로, 조선시대에는 괘불(掛佛)의 주존으로 그 도상이 풍미하게 된다. 조선시대 괘불 속 노사나불의 높고 화려한 보관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수히 흐르는 영락구슬, 온 몸체에서 발산되는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 또는 에너지)의 장엄 등은 어떤 존상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히 압도적이라 하겠다.

노사나불의 또 하나 형식적 특징은 설법인이다. 양 손 손가락의 엄지와 중지를 동그랗게 말아쥐고, 법계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 노사나불이 몸소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장엄, 이는 법계가 무진연기(無盡緣起)하고 있는 실상(實相)이다. 법계를 장엄하는 것을 '화엄(華嚴)'이라 한다. "다라니 무진보배로써 법계를 장엄하니 부처님 세계로다." 〈화엄경〉을 부처님 한 분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노사나불'로 표현된다. 물론 〈화엄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원각경〉과 〈범망경〉의 주존 역시 '노사나불'이다.



그림②

보스턴 미술관 '원각경변상도'
고려불화 다채로운 주제 확인
화려한 장엄과 상서로움 눈길
깨달음의 색 '자마 금색' 사용

그림①. 고려시대 조성된 〈원각경변상도〉의 모습.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림②. 〈원각변상도〉의 부분 모습. 주존인 노사나불 머리위로 만(卍)자와 그의 장엄들이 눈길을 끈다.

불화 바탕색 비밀, 감색과 자색

노사나불 머리 위로는 자색(紫色)의 바탕자리가 드러나 있고, 상단 한 가운데에는 만자(卍字) 장엄이 자리한다. 고려불화는 바탕을 적멸의 공간으로 텅 비게 설정한다. 바탕에 아무것도 그려넣지 않는다. 반면, 조선불화는 바탕을 서기의 장엄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바탕 공간이 가장 위에 아주 일부만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고려불화이건 조선불화이건 바탕자리의 색깔은 정해져 있다. '법신' 자리라고 하는 바탕자리의 색깔은 자색 · 감색 · 흰색, 셋 중에 하나이다. 전통 사경(寫經)에서도 '감지금니(紺紙金泥)'라는 용어를 흔히 접한다. 이는 감색 종이 바탕에 금으로 사경을 한 것을 말한다. '자지은니(紫紙銀泥)'는 자색의 바탕에 은색 글씨이며, 그 외 백지금니(白紙金泥) 또는 백지은니(白紙銀泥)라고 하여 하얀 바탕을 그대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종류가 많은 듯하나, 결코 감색, 자색, 백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화에서는 감색의 바탕 또는 자색을 바탕색으로 쓴다.

제6, 7 차크라 열릴 때의 색깔

고려불화는 자색의 경우가 많은데, 자색은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보라색 또는 자주색이다. 자색은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선 세계의 색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최고의 신성성을 나타낼 때 자색을 쓴다. 그래서 제왕의 집은 '자금성(紫金城)'이고 신선들은 '자하(紫霞, 자색 안개)' 속에서 노닌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불화 바탕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서기는 대부분 자색인 경우가 많다. 최근 현대 불화에서 바탕색으로 검정색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는 '여법(如法)'하지 않다. 여법하지 않다는 것은 '도상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미술에는 필수적으로 공통되는 종교적 상징 또는 기호가 있다. 이것을 도상(圖像, icon)이라고 한다. 이는 신성성의 체험을 통해 종교 미술로 정착하게 된 절대 이미지들을 말한다.

도교에서 검은 '현(玄)'을 천공의 바탕색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검을 '흑(黑)'과는 크게 다르다. 음양오행에서는 북쪽을 근원으로 설정하는데, 이 근원의 색깔이 현(玄)이다. 오행설에서는 북쪽은 물 수(水)에 해당하고, 사신도로 보자면 현무(玄武)에 해당한다. 이 때 깊은 천공의 색깔, 깊은 물의 색깔을 현(玄)으로 표현하고, 불교의 바탕색 감색과 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도 익히 나오는 '이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라고 할 때도, 그 오묘한 근원에 있어 '현(玄)' 자를 붙여 표현한다. '검을 현, 누를 황'에서 나오는 '하늘빛은 검고, 땅빛은 누렇다'는 말도, 마냥 새까만 검은 흑색이 아니라, 검푸른 깊은 창공 색 또는 심연의 바닷 속과 같은 쪽빛을 말하는 '현(玄)' 색깔이다.

'투명한 하얀 빛'과 하나 되는 자리

수행 차원에서 쉽게 정리하자면, 제6차크라의 색깔은 감색(짙은 푸른색)이고 제7차크라의 색깔은 보라색(자색)이다. 궁극의 신성성의 컬러라고 할 수 있다. 제6차크라가 계발된 것을 힌두교에서는 제3의 눈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미간 사이에 또 하나의 눈동자를 그려넣어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불교에서는 미간 사이에 '백호'의 여의주로 나타낸다. 그리고 궁극의 차크라인 제7차크라가 열린 것을 육계보주(계주), 머리 꼭대기의 여의주로 표현한다. 물론 보라색을 넘어 '투명한 하얀 색'과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다. 제7차크라와 관련 특징들을 요약하면, 색은 보라색 · 금색 · 흰색이다. 부처님의 색깔을 '자마금색(紫磨金色)'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마금'이란 '자색(보라빛)이 도는 금색'이라는 뜻이다. 이는 지상의 최고 고귀한 색으로 간주된다.

변상도, 불화를 일컫던 옛 용어

본 작품의 제명은 〈원각경변상도〉이다. '변상(變相)'이란, '상(相)' 즉 '이미지 또는 그림'으로 변환해서 나타낸 것이라는 뜻이다. '경전이나 교리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였다'라는 의미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에 해당된다.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나타내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원각경변상도'라는 것은 〈원각경〉의 내용을 도해(圖解)하여 쉽게 풀어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사경변상도'라는 용어를 익히 들어 보았을 텐데, 경전의 내용을 사경하고 그 옆에다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변상도라는 명칭은 '사경 그림'을 지칭하는 사경 장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 작품에서처럼, 불화도 마찬가지로, '변상도'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관경16관변상도'라는 제명이 쓰여진 고려불화가 있다. 이는 '관경'(관무량수경의 줄임말)의 16관법을 '변상도' 즉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나타낸 작품이란 뜻이다. 현대에는 사경의 그림만 사경변상도라고 하여 제한하여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림으로 풀어서 나타낸 것은 작은 사경이든, 큰 불화이든 모두 '변상도'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박원자의 母情佛心 ⑨ 중흥사 주지 예진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식 넷을 키운 중흥사 주지 예진 스님의 어머니는 "출가하겠다"는 딸의 선언에 적극 지지하며 출가를 도왔다. 출가 후에도 딸 스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했고, 막내아들이 출가하도록 발원해 사문의 길로 가게 했다.

"스님, 다른 생각말고 절에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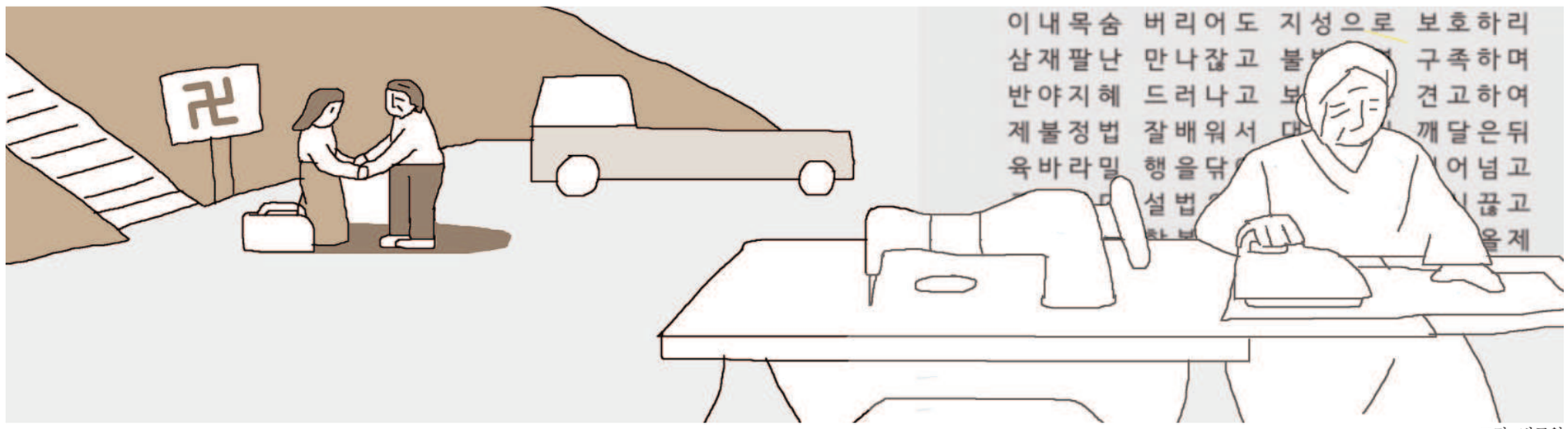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요즘 배우 윤여정 씨 이야기로 세간이 뜨겁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은 생계형 배우라며, 이혼한 후 어린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삶을 있는 그대로 밝혀온 멋진 어머니다.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 이번 수상소감에서도 자신을 일하러 나가게 만든 아들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여정 씨의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나는 반세기에 걸쳐 연기생활을 해온 75세의 노배우만큼이나 아름다운 83세의 어머니 한 분을 떠올렸다. 50년 동안 시골의 자그마한 세탁소를 경영하며 자식 둘을 출가시킨 예진 스님의 어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멀리 경주에서 중생교화의 나날로 바쁜 예진 스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 어머니요? 저를 끝까지 출가의 길을 걷게 한 신장님이자 관세음보살이시죠."

스님을 볼 때마다 '이 분은 화라는 걸 내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다. 물 흐르듯 지금 여기를 전부로 사는 분이다. 출가의 뜻을 조금이라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바로 출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출가수행자의 길을 행복하게 걷고 있는 스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심 스님을 '행복공작소 소장' 으로 부른다.

예진 스님은 28살에 출가를 결심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더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꿈이 곧 사라지고 말아버릴 세속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허망한 욕망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행복을 찾아 출가를 선택했다. 출가를 결심하고 자신이 소유했다고 여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일만 남은 어느 날, 점심 밥상 앞에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저, 절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에 들왔다. 예진 스님이 태어나 처음 기억하는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옷을 수선해 다리미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세탁기도 없던 시절, 수만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남의 빨래를 빨아 헹구고 손질하던 어머니였다.

완고한 시어른과 가부장적인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버거울 때면 동네 절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어머니였다.

이윽고 비장한 얼굴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잘 생각했다. 내 사는 걸 봐라."

어머니의 녹록치 않았던 세속에서의 삶이 그대로 녹아든 고백이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자가 시집가면 눈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인데, 내 듣기로는 부처님 문중에 가면 눈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각 30년이라던데 할 수 있겠나?"

목숨을 내놓고 해보리라 선택한 길이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의 담판은 싱겁게 끝났다. 한나절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이렇게 내가 부처님께 자식을 공양하게 될 줄 몰랐구나. 자식 넷을 키워봤지만 너는 유난히 세상의 때가 전혀 안 묻던 순진한 자식이었다. 세상에 살려면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에 살겠느냐? 너는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구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부모님 탓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하던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부모님이 함께 타셨다. 청도 운문사 일주문 앞에서 어머니와 이별했다. 어서 들어가라며 손짓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종무소로 향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는 딸이 사라지자 일주문 밖에서 통곡했다고 한다.

철 들고 처음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많이 배운 분이었으나 가부장적이고 다감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였다. 그래서 가슴에 앙금도 많았다.

"'잘 견뎌라' 하시면서 손을 놓는 아버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간 쌓였던 감정이 겨우내 얼어있던 호수물이 봄볕에 쩍하고 갈라지듯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아버지와의 사이에 흘렀던 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단번에 녹아지는 느낌이었죠."

출가하면 어머니가 많이 생각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힘들던 행자시절을 보낼 때 떠오른 건 그날 아버지와 손잡았던 따뜻한 감촉, 그리고 잘 견디라던 그 한마디였다. 간혹 사람들이 호기심을 담아 묻는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첫사랑에 실패해서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아버지인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엉망진창이어서 출가했어요. 그런데 출가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죠."

세탁소 하며 자식을 키운 모친
"출가하겠다"는 딸 선언 지지해
단단한 스님 되도록 항상 응원
막내아들 출가토록 발원하기도

많은 스님들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한다. 출가란 일단 세속과의 단절이자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예진 스님의 출가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조로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다. 크고 작은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던가. '출가의 목적인 성불은 나중의 일이고 승가대학 졸업만 하면 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문사의 규율은 엄격했고 일도 많고 고되었다.

부모님은 방학을 하고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는 딸 스님을 차로 절 앞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안 해도 다 안다. 운문사 지붕이 멀리 보이면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에 불안감을 보이던 딸 스님의 손을 꼭 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님, 잘하려고도 못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가랑비에 옷 젖듯 부처님 법에 젖는 날이 올 테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절에 계세요."

나중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보니 어머니가 한 당부는 조사 스님들이 한 말씀과 다르지 않았다.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두 분은 저를 단단하고 반듯한 스님으로 키워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30대에 갈등의 시기가 있었어요. 스님들로 이뤄진 공동체가 아닌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결제를 해봤으면 하는 시기가 있었죠. 나를 세상 한가운데의 실험 무대에 올려보고 싶었죠."

어머니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이러시더란다. "스님! 나를 차라리 죽이고 나오세요."

아직 단단히 여물지 않은 어린 수행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출가의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음을 안 것이다.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바로 뜻을 접었다는 스님께 물었다.

"스님도 개성이 강한 분인데 어머니 말씀을 금방 수용하셨네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가 항상 옳았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출가한 저에게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는데 저는 부모님의 강력한 응원에 의해서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두 분이 저를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공력을 들이신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집중은 분별과 집착을 떠난 순수한 사랑이다. 그래서 금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더 치열하게 살게 한다. 예진 스님이 어느 날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경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막내아들이 출가하기를 발원하는 백일기도였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들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출가했다. 어려서부터 명석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다. 먼저 출가한 누나 스님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출가하겠다는 동생에게 '잘 생각했다' 며 환영했다.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출가하자 수행자처럼 살았다. 자식이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 도량석을 도는데 어찌 발을 뻗고 잘 수 있느냐며, 그 시간 자신도 염주를 들고 꼬박 두 시간 마을의 뒷산을 돌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지금도 딸 스님이 있는 절에 오면 청소만 한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풀을 뽑는다. '좀 쉬시라' 는 스님의 말에 '내 업장을 청소 해야죠' 라고 대답할 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 스님의 사제나 딸 스님 상좌들의 가사 장삼을 거둬가 세탁해놓는다. 동네에 버려진 책이며 폐지 등을 모아놓았다가 폐지를 줍는 사람에게 전해준다. 남을 돕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진 스님은 꼭 닮아있다.

어머니는 지금도 늘 관음기도를 하며 재봉틀 앞에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을 붙여놓고, 다음 생에는 아이로서 출가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딸 스님이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재벌, 어느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딸 스님을 바라보는 눈길에 존경심이 가득하다.

"어머니께선 두 자식을 출가시키려고 세상이 오신 분 같아요."

"그러잖아도 한 스님께서 예진 스님 모친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자식 둘을 스님으로 배출해 세상을 제도하게 하려고 태어난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일심으로 기도한다. 출가한 자식들이 스님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어느 자식과도 비교하지 않고 스님의 길을 가는 내 자식이 최고라며 응원하고 존경하는 예진스님의 어머니가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다.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되고 낮추고 낮추어서 바다가 되어야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기도 하고요."

스님은 인생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 말에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냥 한 100일만 참아보세요. 안 되면 1년, 3년, 그래도 안 되면 30년 참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진 스님이 스승과도 같았던 어머니 고영자(대명화) 보살의 삶을 보면서 깨우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가〉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 : 비교시 100% 장난감 수준!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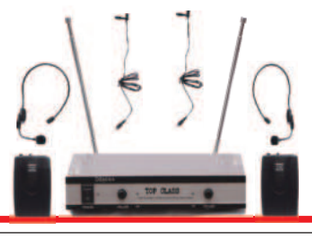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

부처님 성불은 시공초월 본래 성불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⑰ 석가모니와 제바달다

이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인간 그리고 천상의 사부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법화의 가르침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 원을 일으켜 위없는 보리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남이 없었느니라. 여섯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고자 한 까닭에 보시를 할 적에 코끼리, 말, 칠보, 도성, 처자, 하인은 말할 것 없고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위해 왕위를 버려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언하되 사방에 법 구하되, '누구든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섬기어 시중을 들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만약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설해드리오리이다' 고 하였다.

왕이 선인의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여, 곧 선인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며 시중을 드는데 과일을 따고 물을 길으며 땔나무를 하며 음식을 만들며 심지어 몸으로 평상이 되기도 했지만 몸도 마음도 고달픔을 몰랐다.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부지런히 시중들어 모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였느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아 육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이상과 팔십종호와 붉은 금빛의 색과 열 가지 힘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과 네 가지 포섭하는 법과 열여덟 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힘, 신통력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법화경〉 전체 28품 가운데 제12 '제바달다품' 은 구마라집이 번역할 당시에는 없었던 품으로 천태지의 생존 무렵에 추가된 품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바달다는 교단에 반역을 꾀했던 인물로 부처님을 시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調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는 곡반왕(斛飯王)의 아들로 아난 존자의 형이었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오역죄(五逆罪) 중 삼역죄(三逆罪)를 범했다. 교단을 분열시키는 파화합승(破和合僧)의 죄를 범했으며,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려 석가모니의 발가락에 피를 내게 한 출불신형(出佛身血)의 죄와 석가모니를 해치지 말라고 충고하는 연화색 비구니를 죽인 살아라한(殺阿羅漢) 죄를 범했다. 그리하여 제바달다는 불교 역사에 악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법화경〉에 와서는 석가모니의 전신(前身)이 왕으로 있을 때 선인(仙人)으로 있으면서 부처님께 〈법화경〉을 설해준 스승이었다는 것이다. 선인이었던 제바달다를 국왕이었던 석가모니 전신이 천년이 지나도록 온갖 시중을 들며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면서 선지식으로 섬겨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 이 제바달다에게도 부처님은 수기(授記)를 준다.

〈법화경〉의 법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일들을 그 의미를 빼앗아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하는 말들이 나온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여래수량품' 에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 을 설하는 대목에 부처님이 천상, 인간, 아수라 삼도(三途)의 중생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가만히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뉴다라삼먁삼보리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되었느니라."

언제 어디서라고 역사적 사실로 명기된 부처님의 성불이 진짜 성불이 아니고 부처님의 성불은 시간과 장소를 말할 수 없는 백천만 억 나유타겁 전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성불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성(佛性), 혹은 법성(法性) 자체가 본래 시작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계가 바라밀, 바라밀이 지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⑰ 지계바라밀

대승불교의 이상상(理想像)인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보살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승 보살은 발심(發心), 즉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야 하며, 자신의 발심을 모든 중생에게 확대한 서원(誓願)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의 초기 대승경전은 발심을 포함한 서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승 보살의 서원은 발심을 견고하게 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한다.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한두 가지 바람은 있으며,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서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복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이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타심이 있어야만 이타적인 서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서원은 그 자체로 선업(善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십선업도(十善業道), 즉 십선계(十善戒)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타적인 서원일지라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선한 의도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승불교도들은 불전문학에서 본생(本生) 보살의 실천덕목이었던 바라밀에 주목하게 된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 파라미타(pāramitā)를 음사한 것으로, 그 의미는 '최상의 상태로서 완성' 이다. 한편 구마라집은 이를 도피안, 즉 '깨달음의 경지인 피안에 도달하는 것' 으로 한역했다. 일부 학자들은 구마라집의 한역이 문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인들은 도피안을 의미상 적절한 해석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통용된다.

또 대승불교도들은 보살의 실천덕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기 불교경전에 산발적으로 설해졌던 여러 수행덕목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로 인해 초기 대승경전에는 여러 유형의 바라밀이 설해지게 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여섯 가지 수행덕목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이다. 여기에 바라밀을 덧붙이면 육바라밀(六波羅蜜)이 되며, 이것은 각각의 수행덕목을 통한 완성으로서의 과정과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계바라밀의 경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계를 통한 완성, 지계에 의한 완성이 지계바라밀의 뜻이며, 지계가 곧 바라밀이고 바라밀이 곧 지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섯 가지 바라밀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야바라밀은 다섯 가지 바라밀의 바탕이 되며, 각각의 바라밀은 자신의 위치에 머물면서 동시에 나머지 바라밀을 성취한다. 다시 말해 지계바라밀도 반야바라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지계바라밀에 의해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도 원만해진다.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대비심(大悲心)과 흔들리지 않는 용맹심으로 중생을 위해 계(戒)를 지킨다. 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계를 지키는 목적은 명성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피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보살의 지계는 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바라밀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보살의 지계에 의지하여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 원만해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⑰ 석가모니 당시의 화폐

펀치마크 주화 유통됐을 것

출가 전의 싯다르타 태자의 손바닥에서 금화와 은화가 반짝이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태자였다면 자신의 시종들에게 은전(銀錢)이나 동전(銅錢)을 주면서 장터에 있는 어떤 물건을 부탁했을지 모른다. 만일 이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담아낸다면 손바닥 위의 동전을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동전 양쪽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을까.

불교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할 때 그 색(色)을 산스끄리뜨어로 루빠(rūpa)라고 하는데 보통 '물질' 또는 '형상' 정도의 뜻으로 푼다. 이 말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기원전 4세기경 빠니니는 동전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은과 같은 귀금속 쪼가리를 마찬가지로 루빠(rūpa)라고 불렀다. 이 금속 쪼가리에 특정한 '모양' 을 찍어내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루빠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루삐야(rūpya)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즉 '(은과 같은) 금속 쪼가리로 만들어진' , 또는 '모양을 낸 것' 등의 의미가 되겠다. 여기서 오늘날 '돈' 이라는 뜻의 인도말 루삐(rupee)가 탄생한다.

석가모니 당시에 존재했었던 화폐는 대부분 얇은 은판에 특정한 문양을 때려서 만든 주화가 일반적이었다. 인도 내 여러 지역에 따라 주화의 형태와 문양은 다양했지만, 표면의 문양을 때려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거의 제작기법이 동일했다. 문양이 새겨진 펀치를 금속 표면에 대고 때려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펀치마크(punch-marked)주화 또는 타각(打刻)주화라고 부른다. 주로 은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만든 동전을 "까르샤빠나(Kārṣāpaṇa)"라고 불렀다. 모양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금속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문양을 새긴 후 귀퉁이 등을 잘라내 무게를 잡았다. 따라서 외형은 대부분 불규칙했다. 문양으로는 만(卍)자의 길상문이나 황소나 태양, 또는 기하학적인 패턴 등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어떤 하나의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문양을 섞어서 한 면에 찍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펀치마크 주화가 고대 인도 사회에서 통용되던 대표적인 주화의 형태인데, 대략 기원전 6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통용되었다. 따라서 석가모니 당시에는 이러한 형태의 주화가 유통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펀치마크 주화의 형태나 표면의 문양은 꽤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샤캬(Shakya)족들이 사용했던 은화는 약간 두꺼운 은판을 일정한 무게가 되도록 불규칙하게 잘라낸 다음, 그 은판 쪼가리 중심에 펀치를 쳐서 문양을 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펀치마크 주화들은, 은판 가운데에 펀치를 두고 망치로 상당히 세게 내려쳤기 때문에 가운데가 뒤쪽으로 깊게 움푹 파진 형태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마치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와 같이 가운데가 꽤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 지역의 펀치마크 주화들은 평평한 주화들이 거의 없다. 크기는 대략 가로세로 2센티 내외인데, 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심 문양은 오각형의 별모양이 상당히 많다. 오각형 외에 다른 기하학적 문양도 함께 사용되었다. 카필라바스투 인근에서 발견되는 주화들은 대략 이렇게 생긴 은화들이 발견되는데, 석가모니 당시에도 이러한 주화가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 주화 제작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역시 은(銀)의 무게다. 고대 인도에서는 베다시대부터 일정한 무게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홍두(Abrus precatorius)의 씨앗인데, 밝은 주홍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콩이다. 이 씨는 일관성 있는 무게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문명권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해왔다. 산스끄리뜨어로는 락띠까(raktika, 현대어로는 라띠 ratti)라고 불렀던 이 씨의 무게는 대략 0.12g 정도 나가는데 이 씨앗 백 개의 무게가 중요한 중량 단위로 사용되어왔다. 주화 등과 같이 작은 물건의 중량 단위가 되는 '1샤따마나' 가 바로 이 씨앗 백 개의 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11그램에 가깝다.

석가모니 당시 샤카족들도 이 주화의 무게 단위를 사용했는데, 은화들은 대략 64라띠의 무게를 가진 것들이었다. 즉, 대략 7그램 내외의 것이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9호 | 17 | 전면광고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초빙 동참 안내
지역에 법인지사 설치시 법인 주지사 임명
지역에 사암 등록시 주지 임명
수행승 자격·신분증 부여
세무서 법인번호 등록, 법원 등기 관 등록
불교문화법인
대표법사장 법광 종법주
서울시 노원우제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주·구성학·명리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주(구성학 · 명리)
1대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 찻집·카페하실 보살님 !
대전 010-5257-9731스님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제공
010-5049-1533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특수 기도
스님에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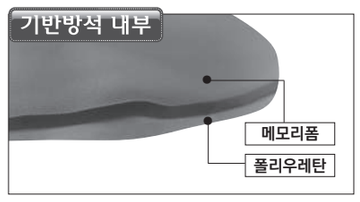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9호 | 18 | 전면광고

병들어 야위고 다시 큰 두려움이 없게 하며
후세에 모든 나쁜 과보가 없게 하며 지옥에
떨어져도 괴로움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전통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체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지역
- 법회 보고 상담하기 제일 좋은 암자
- 빌라 반지하 몽땅 8천7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1-433-8130

토굴 · 토지 구함

- 정업수행을 하는 비구승입니다.
-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굴이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010-7678-5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 부지 : 53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 1평
- 가액 : 2억(절충)

010-9656-0108

전원주택 안내

(암자도 가능)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52-1
- 대지 191평, 전원주택 30평
- 황토방 5평, 창고 10평
- 태양광, 마당주차 5대
- 가액 2억 7천만원

010-3882-289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체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5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포 교 원 할 분

- 위치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30평
- 보 500만, 월 50만 코너남향
- 공양주, 부전 할분, 쓸분 법당 철거, 폐기물 처리
- 결혼할 분 전화하세요.
- 남(45세)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유
- 회사대표, 1m80(서울거주)

010-5381-1419

청정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614
- 대지 85평
-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 가액 : 7천만원
-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전국 사찰, 또는 암자에서 재 건축및 재 개발에 포함되어 보상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스님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 종단 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 불교 조계종
총괄사업 본부장 현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
02-2198-5022~4 , 010-6209-5099
※ 수 많은 스팸 전화로 인해 전화를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항삼세명왕



지명원의 5대 명왕 중의 하나로서 몸의 색은 청흑색이고, 얼굴은 3면이고 얼굴 각각에 3개씩 있으며,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고, 손은 8개가 있으며, 각 손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항삼세는 대일여래의 교칙에 따라 금강살타 몸으로서 항삼세명왕으로 변화하여, 자기(대자재천) 스스로가 삼계(三界)의 주인이라고 자처하여 교만(驕慢)을 부리는 대자재천과 대자재천비를 짓밟아 혼을 내주어 삼독(三毒)을 항복받아 불교에 귀의하게하고, 항삼세의 양쪽 두 발(양족, 兩足)은 선정과 지혜를 의미한다. 이 수행은 탐, 진, 치 삼독을 물리치는 수행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⑨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

"막연한 응원보다 능력 인정이 더 필요"

오랜만에 방송작가와 웹툰 작가로 1인 2역을 하는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의 집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창수 씨의 근황을 상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보리수아래의 장애인들이 그렇듯 창수 씨도 중증 뇌성마비인이다. 시나리오 작가와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언어장애에 팔과 손이 매우 부자유스러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시나리오 작가, 웹툰 작가를 한다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장애인들의 능력과 재능을 한정 짓곤 한다. 하지만 장애인 중에는 창수 씨처럼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직업과 작가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편의시설과 일상에서의 편견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 한정의 편견이다.

창수 씨는 대학 졸업 후에 방송아카데미에서 시나리오 작가 공부를 하고 1998년 KBS 라디오드라마 '무대' 작가를 시작하여 라디오 드라마만 20편을 썼다. 라디오드라마 외에 희곡, 소설, TV 드라마 별순검 시즌 3의 7화 사단칠정 집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며 2013년 첫 시나리오 집 '내 손가락 끝의 지옥도' 를 발간하였다. 이 시나리오집에는 지옥도, 현상학, 낯선 거울, 탈의 관음도 등 총 4편의 작품이 담겨있다.

그 중 창수 씨가 애정을 두는 작품은 "지옥도"다. 이 작품은 고구려 시대에 에어리언 같은 괴물이 싸우는 이야기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자신을 감정이입 시킨 작품이라고 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괴물이야기를 좋아했다는 창수 씨는 괴물의 모습이 이쁠 리는 없지만, 괴물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창수 씨가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영화 쪽 실전에서는 문턱이 높았다.

완성된 작품을 제작사 여러 군데 보내면 내용이 좋다고 하여 힘들게 찾아가면. 계속 퇴짜를 맞았는데 제작사 측에서는 장애가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애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함에 심한 언어장애로 소통이 어렵다 보니 작가로서 좀 더 성장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경직되고 표정도 일그러지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보다 사회활동에 더 제약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창수 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창수 씨는 여전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장애인영화제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수 씨는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웹툰이 뜨기 시작한 세대에 웹툰으로 꿈을 하나 더 만들었다. 웹툰에서 인기를 끌면 드라마, 영화, 소설로 만들어지고 웹툰과 드라마 시나리오는 서로 관련이 깊기에 시나리오 작가인 창수 씨에게 웹툰작가도 잘 어울린다. 2018 한일웹툰공모전 스토리 부문에서 피추천인의 스토리 '저승에서 이승에서' 가 당선되어 웹툰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오늘도 들어가 본 창수 씨의 작은 블로그에는 최근까지 꾸준히 작품이 올라오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천하를 얻으려다 관절염만 얻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작가다"라고 소개한 프로필 속에는 시나리오를 향한 오랜 집념과 그 만의 철학이 그대로 묻어 나온다.

방송작가 · 웹툰 작가인 뇌병변장애인 창수 씨 외에 보리수아래 회원 중에는 유튜브 활동을 비롯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향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로 응원을 한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과 일을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을 바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여러 장애가 중복된 뇌병변장애인들은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더 발전할 산업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이동, 접근성 등이 자유로워져서 '장애' 가 큰 장벽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불교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변화하는 사회와 불교 트렌드에 장애인들이 먼저 발 맞추어 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시혜 대상으로의 장애인 포교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포교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장애인포교 트렌드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방송 작가와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⑨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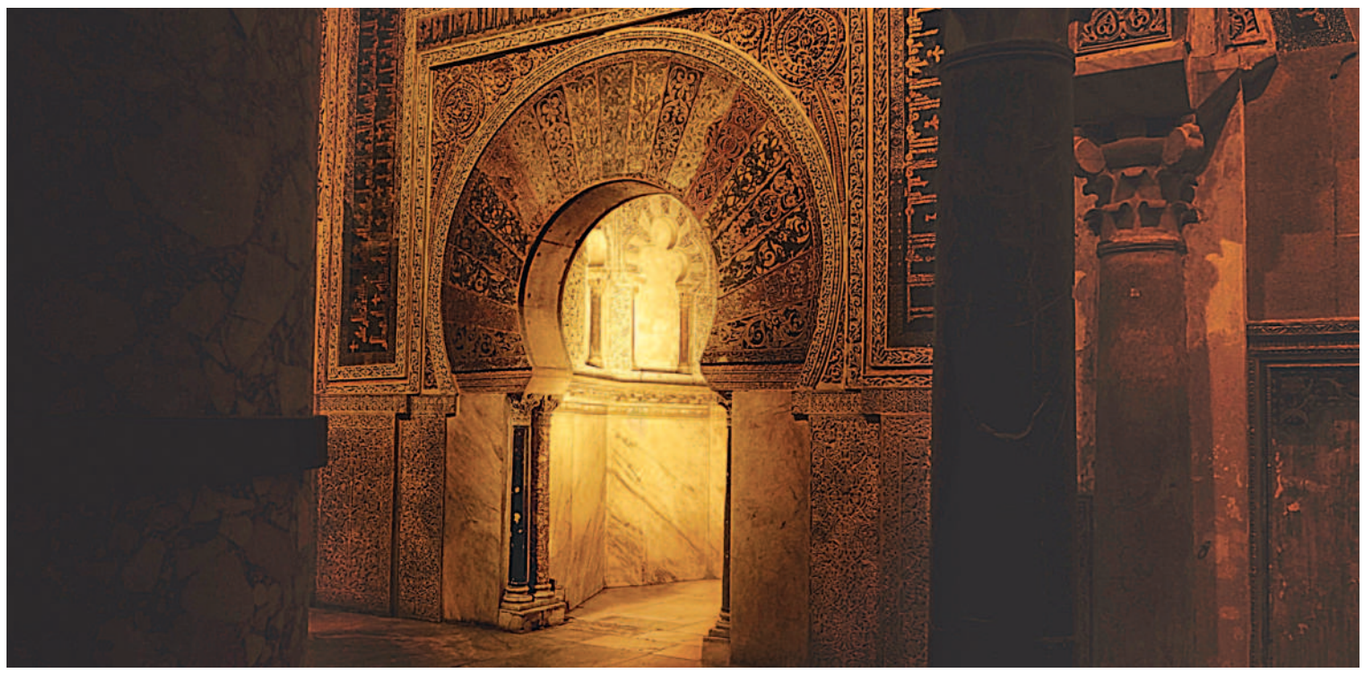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윤회전생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무지의 불확실성, 지혜 탐구 원동력



마이클 뉴턴(Michael Newton)은…
상담 심리학자이자 최면요법 마스터. 최면요법을 통해 내방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하면서, 삶과 삶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배우러 이 고단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나? 이번 생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 삶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의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영혼들의 여행〉이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명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후속작으로 〈영혼들의 운명〉, 〈영혼들의 기억〉이 있다.



***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를 선택하는 방법**
*** 다양한 수준의 영혼들(초보 단계, 중간 단계, 고급 단계)과 그 특성**
*** 소울 메이트를 인식하는 방법과 삶의 목적**

지도책은 왜 중요한가

걱정과 불안은 질병보다 무섭고, 두려움과 공포는 전쟁보다 무서운 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질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대개는 전체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에서 비롯되고, 무지로 인한 앞날의 불확실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무지와 불확실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이 생을 잠식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이런 무지는 어찌보면 생래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이번 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기억을 삭제당한 채 눈가리개를 하고 이 지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지도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그림에 눈 뜨게 하는 영혼 좌표

〈영혼들의 여행〉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큰 그림에 눈을 뜨게 하는 지도책이다. 최면치료사인 뉴턴 박사는 삶과 삶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윤회전생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 뉴턴 박사가 기록해 놓은 29명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 죽음 직후에 보고 느끼는 것**
*** '영혼의 가이드들'에 대한 진실**
*** 죽음을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생기는 일**
*** 특정한 영혼 그룹에 속하여 이루어지는 쉼과 통찰과 내일에 대한 설계**

뉴턴 박사는 전생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윤회전생을 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나게 깨우쳐 준다. 방정식을 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삶과 삶 사이로 들어가서 윤회전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삶을 수월하게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지도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방황은 있을 수 없다. 안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인생이라는 마당이 얼마든지 마음 푹 놓고 뛰놀아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고 실감하게 될 때 비로소 터득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인생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

뉴턴 박사의 리드에 따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피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충분한 검토 끝에 설계되고 각자 스스로 동의한 것이다.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돌아온 영혼들을 맞이하는 공간'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쉼을 통해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에 개봉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에는 지구에서 태어나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한 영혼이 등장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지구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멘토가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턴 박사의 책들이 근거와 배경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전생 탐구로 인생 살펴
가이드 있는 목표 제공
진화의 끊임 없는 여정

영계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강제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영혼을 맞이하는 공간은 편안하고 아늑하며, 안내자들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다음 생을 위한 청사진은 영혼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련의 심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영혼이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여 이번 삶이 자신의 영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었다면, 다음 생에는 더 어렵고 험난한 삶을 택해서 환생하게 되기 쉽다.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택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한 인생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소중한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불편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인 잘못이나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불편한 신체 또한 영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영혼이 불구의 몸 속에 있게 되면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영혼의 발전이 촉진된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쾌락에 치우쳐 삶을 낭비하고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신체 장애로 인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을 닦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 마음껏 뛰놀아도 되는 운동장

큰 의류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불만과 요구 조건을 늘어놓기 일쑤인 직원들로 인해 늘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실감하곤 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해결해 왔다. 두 번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나 중도에서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최면여행을 통해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영아였던 자기를 어머니가 교회 문앞 계단에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외롭고 불행한 유년기를 고아원에서 보낸 뒤, 그는 어느 나이 든 부부의 양자가 된다. 양부모들은 엄격한 사람들로, 그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십대에 그는 집을 떠났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수없이 행하였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꼬이게 된 것일까. 최면 여행의 현장을 요약하여 옮겨 본다.

"당신은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된 영아입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떠나려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광주리에 들어 있습니다. 영아인 저는 색이 바랜 푸른빛 담요에 감싸여 있습니다. 어떤 계단 위로 광주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몹시 춥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 앞에… 누가 나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곳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저를 내려다보면서…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젊은 여자입니다. … 저를 낳게 한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저의 얼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눈물로 목이 멘다)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 어머니는 아기인 저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머니는 저를 거기에 두고 갈 수 없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까?"

(감정이 복받쳐 겨우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양육할 돈이 없다.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몹시 사랑하지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오, 어머니는 결국 저를 마음으로는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를 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저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군요."

"양부모와 함께 살았던 때를 이야기합시다. 그 분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그분들은 한 번도 저를 흡족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조종하고, 판단을 내리곤 했지요.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화가 치밀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던 그 원인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큰 걸음을 뗀다. 더구나 영아였을 당시 자신이 버려진 것이 결코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큰 빗장 하나가 열린 셈이다.

그렇다면 그를 버리고 떠나간 생모와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다시 최면 여행을 통해, 그는 오래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았던 전생을 소환한다. 그는 족장으로서 생모였던 여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적이 있다. 여인이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명령을 어겼고, 그의 권력을 훼손했던 것이다. 그는 식량 분배를 부족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충성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그녀를 본보기로 벌을 받게 한 것이다.

여인과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인과응보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냉철하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스며들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삶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여정은 인과응보의 연속상이라기보다는 진화의 끝없는 여정이고,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다. 마침내 큰 사랑에 안겨서 안도하고, 그 사랑을 결국 내 안에서 키워서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 없이 베풀기 위한' 긴 여정인 것이다. 이 우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놀이터이고 배움터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실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작가〉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답게 수놓은 꽃의 새봄입니다.
사바세계의 몸을 나투시어 모든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과 평화를 함께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辛丑年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 지사지국 접수처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현대불교
Tel. 02)2004-8216 Fax.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대행 스님

여러분의 몸뚱이가 부처님의 법당이요, 그 안에 바로 자부처가 계십니다

오늘은 물에서 노는 어류에 대해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물에서 노는 생물들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돼 있고 모습도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어류가 또는 동물 자체가 서로 교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서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어류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의 천 년이라면 여기의 십 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류들도 차원에 따라서 돌고 돌다가 무뜩 우리네들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이 났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촛불을 항상 켜고 있답니다.

요즈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촛불을 한 번도 꺼트린 예가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와서도, 촛불을 켜는 것이 촛불이 아니라 마음의 촛불이 켜져야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을 아무리 켜도, 등을 사월 팔일 날 아무리 켜도 촛불이 아닌 것이 있고, 그것은 그냥 불인 것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겠기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책을 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못하든 하든 자기가 생긴 대로,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도 그렇게 차원대로 가기 때문에 어류 자체를 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잡아서 먹거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천 년이 가고 백 년이 가고 이러게끔 놔두질 않죠. 그러나 그전에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유명하게, 그 어류들이 많이 커서 참 별의별 모습을 다 하고 다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펭귄 같은 이런 걸 보면 걸어 다니게끔 돼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신사 같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속에서 살면서도 하(下)의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돌 틈에서 공부들을 하는 그런 어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한 팀 넘어갈 때, 이렇게 진화가 돼서 죽고 또 모습을 바꾸고, 죽고 또 모습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어가 된답니다. 그런 것은 좀처럼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돼 있죠.

우리가 지금도 가만히 지켜본다면, 어류들이 알을 낳느라고, 또 알을 낳아서 새끼가 되기까지 모래톱에 나와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를 볼 때, 또 거북이도 모래 틈에 나와서 알을 까느라고 배가 고파도 참고, 몇 날 며칠을 참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 외딴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놀던 고향을 찾고 또 자기가 새끼를 깐 고향을, 즉 자기가 난 자리를 찾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생을 한다 하면 그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아주 죽이는 법이죠. 제가끔 나름대로 거북인 거북이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저희 고향 찾아가느라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저희들 노는 그 장소 찾아가느라고요. 그러니 고통을 주는 거는 말도 못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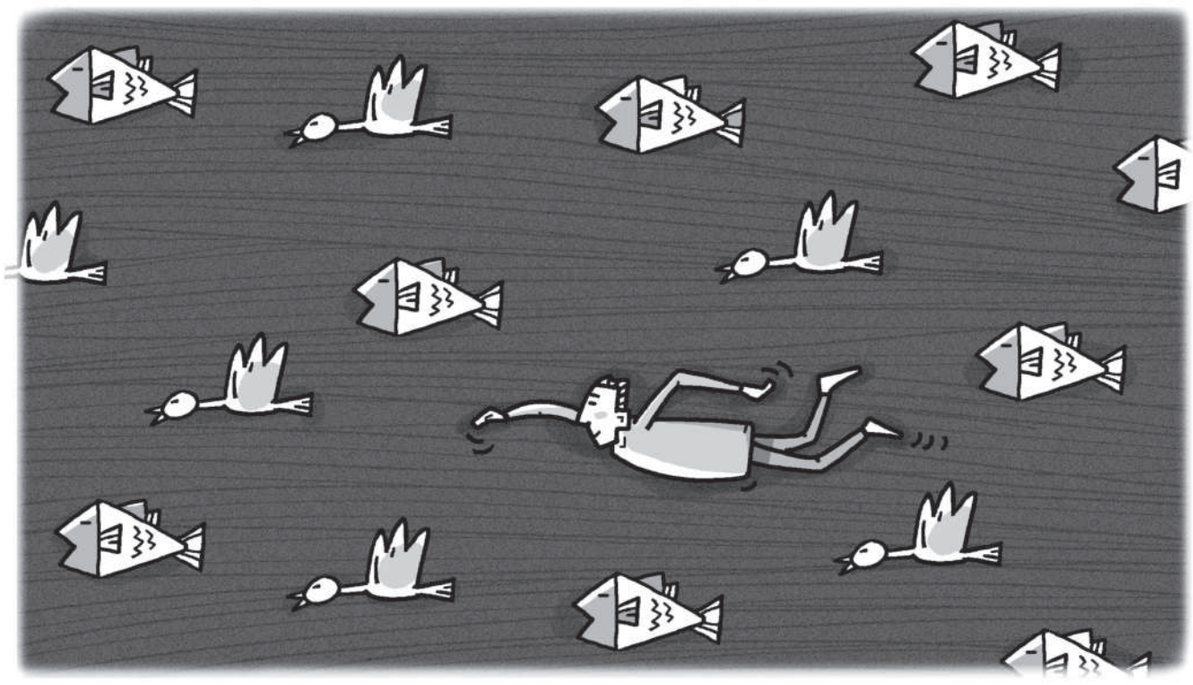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도, 만날 그런 얘기합니다만 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삼분의 이는 다 죽고 삼분의 일만이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 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도 역시 징용으로 끌어가서 쓸 거는 다 쓰고, 8.15 해방 되니까는 되는 대로 그냥…. 태워다 주는 겁니까, 어디? 풀어 놓는 거지. 고기들 물에다 풀어 놓듯이 말입니다. 그 머나먼 데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 그때야 뭐, 차가 변변합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저 가는 것만 좋아서 기차 꼭대기 위에도 그냥 붙들고 타고, 지붕에도 타고 이러고 오다가 꽁꽁 얼고 떨어지고 뭐, 말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는 거를 내 자신이 기억하는지라, 고기들 방생하는 것도 보면 '에이그, 저것이 징용 감얼이로구나,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애석하기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도릴 모르거든요. 도무지 한 치도 몰라! 그런데 그 고기들 좀 보세요. 모래 틈에다 알을 까 놓고요, 그거 성장할 때를 기다리면서, 아, 남녀라고 보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것이 다 성장해서 물이 들어오면 새끼들이 다 나갈 수 있게끔 해 놓고 바로 자기들은 죽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기묘하고, 인간의 생존이나 그 생물의 생존이 얼마나도 비참합니까. 또 비참한가 하면 얼마나도, 애정이라고 할까, 부모자식지간의 정이라고 할까? 그런 어류들도 자기의 목숨도 다 버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래도 부처될 가능성이 100% 있다고 하는 고등 동물로서 그런 뜻을 모른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천차만별로, 차원대로, 모습대로 그렇게 다른 그런 생물들이 지금도 돌 틈에서 남을 해하지 않고 그저 이끼만 먹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어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까맣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느 천 년이 돼야만이 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등 동물로서 인간이 돼 가지고도 그 먼저 과거에 걸어온 몇억 년, 억 년이 아니라 억겁을 거쳐서 오고도 자기가 걸어온 그런 걸 본 듯 만 듯 하거든요. 자기가 거쳐 온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천 년이 걸려서, 인간 사는 대로 하면 십 년이 걸려서 결국은 천국에다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 고 했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전에는 어부들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해 가지고, 삼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배로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때가 돼서 고개를 내밀고 물 바깥으로 한번 내다볼 때에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 그걸 연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깨닫기 전에는요. 깨달아도, 그만큼 깨달아 가지고도 그 몸을 벗어나서, 물속, 그 물 집을 벗어나서 땅덩어리로 올라와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쓰고 또 천 년을 견뎌야 하니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겠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거북이가 천 년을 견디다가 그 날짜가 지나서 한 번 나올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마음은 깨달았으나 도저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내밀어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가에 하얀 소복한 여인이 보이면서 배가 닿더랍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그 배를 따라가면서 자기는 '아, 이 모습을 벗어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는 몸을 버렸습니다.

몸을 버리되 어떻게 버렸나 하면, 그 몸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버릴 수는 없기에, 즉 말하자면 무역상한테 그냥 보이게끔 해서 잡힌 거죠. 잡힌 거보다도 모래톱에 엉금엉금 기어 나오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쉬던 사람들이 큰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니 저걸 팔아서 한몫 보겠다 하고서는 잡았습니다. 그 참, 아주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은 셈이죠. 예전에는 약으로다 많이 쓰여서 그렇게 큰 거북이를 한번 만나면 그때 돈으로 엽전이 백 냥, 이백 냥씩이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 가니까.

그런데 거북이가 자기 그 모습을 벗을 양으로 모래톱으로 기어 나와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뭘 갖다 주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을 버렸는지라 아무거라도 주는 대로 그냥 먹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술이었답니다. 지금은 약이 있지마는 그전에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 큰 물건을 데리고 가려면 술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술을 주니까 그냥 먹고 보니 거북이가 생각할 때 '아, 이거를 먹으니까 어찌 몸이 이상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구나. 예라! 몸을 가눌 수가 없든 있든 내가 이 몸을 벗어야만이 될지언대는 이 몸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고서는 그냥 먹고 취하고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그저 하는 대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팔 양으로 장으로 가서 턱 내놨는데 너무나 엄청나게 크니까, 중국 사람이 대상인으로서 물건을 싣고 왔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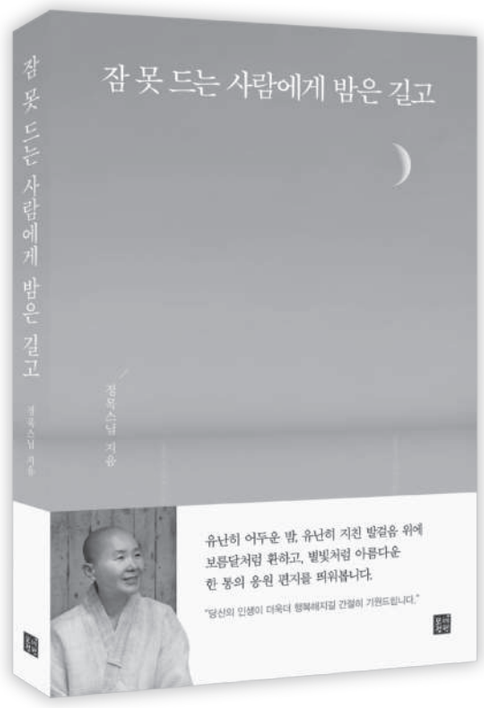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자기 주인공에다 억겁을 통해 종이 됐던 그 종 문서를 다 태우라

☞ 21면에서 계속

또 사 가느라고 거기에 옹기종기 서서 배에다 싣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배에 있는 쓸개나 모든 걸 끌어내고 피 빼내고 이럭하고선 그것을 다시 말려서, 속에다 짚을 넣어서, 그거 하나만 팔아도 얼만지 모른답니다. 예전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 거북이는 기가 막혔답니다. 몸을 버렸어도 죽는 마당에 '금방 이 몸을 벗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나.' 하고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죽을지언대 금방 이 모습을 벗었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선 잠자코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고만 서로 통과를 했답니다. 이 통과는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값을 척 치르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장도로다가 목을 그냥 팍 찌르는 순간 그것은 그대로 그냥 죽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왜 이렇게 살생을 하십니까?" 하니까 "살생이 아니니라. 나한테 이렇게 몸을 벗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고초를 받는다면 그 어찌 살생이 되겠는가? 이 옷을 벗어 버리고 훨훨 날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칼을 빼더니마는 피를 씻어서 다시 넣으면서 "여보게, 요다음에 만나세. 자네 만날 길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모르나 꼭 만날 것이네." 하고선 떠나거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거북이더러 "자네, 요다음에 만나세." 하니 이게 무슨 이치냐 이겁니다. 그러니 별 미친 사람 다 봤다고 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그 무역 상인 부부를 보는 순간 거기에 태어나겠다고 생각을 한 거만큼은 좋은데, 태어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참, '저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마침내 그렇게 옷을 벗고선 그분들에게 태어났답니다. 그 태어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갈공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십 년 탑을 공을 들여서 아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공을 들이지 않고 객담하듯 그냥 바깥으로 나도니 공덕이 될 수가 있나? 바깥으로 왜 돕니까? 내가 항상 말끝마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설법을 해도 마음으로 결국엔 돌아가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꼭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까? 이 모두가, 어떠한 낮은 동물이든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개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모습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떠한 모습을 했든 모습이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한 찰나 내가 모습을 바꾸려면 모습을 바꿀 수 있건마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인간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이 인간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몸을 받아 가지고 그 길 없는 길을 얼마나 헤매면서 또는 몸 없는 몸을, 공한 몸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아팠습니까? 그러니 그런 도리를 우리가 연쇄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너무도 우리와 똑같다는 얘깁니다. 우리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쳐 나온 과거를 본다면 한 찰나에 지금 현재지마는, 우리가 모르고 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왔을 때에….

예전의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뼈다귀에 절을 하십니까?" 하니 "그것이 내 형제인지도 모르고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내 형제 내 부모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 부모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할머니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의 뼈다귀도 될 수 있으니 어느 뼈다귀가 남의 뼈다귀라고 말하겠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선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냥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이랬듯이 우리는 그 도리를 좀 더 알아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실 때에마다 안 하시고, 길에서도 한 사람 만나든 두 사람 만나든 "사람이라면 이런 도리를 알아야 하노라." 하시면서 그렇게 마다 안 하시고 설법을 하셨다는 그 이치를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고마운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 뜻이 이러한 도리이거늘…,

우리는 모두가 남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저렇게 앉아 계시는 저분이 예전에,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와 더불어 같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자손들을 낳아서 그렇게 내 목숨이 앗아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아리따운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겼고 스스로 자비가 나오고 스스로 사랑이 나오고, 불쌍한 사람을 길을 가다 만나면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고 우리가 활용을 할 줄 모른다면 억겁을 통해서 진화되면서 모습이 항상 윤회에 끌려다니면서, 유전에 끌려다니면서, 인연법에 얽매이면서 이 도리를 어떻게 다 면하리까?

우리가 억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금방 한 식구로 살다가, 부모로 살다가 벌써 조카가 되고 조카로 살다가 벌써 딴 집으로 또 태어나고 그런다면 이거는 도대체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이고, 그냥 그대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뒤섞인 이런 부모 형제인데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뒤섞이고 뒤섞이고 또 뒤섞이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우리의 몸뚱이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맥 동맥에서 피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어찌 정맥에만 있고 동맥에만 있겠습니까. 온 누리에, 온 누리라는 것은 이 온몸에, 손끝 발끝마다 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온 몸뚱이를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피가 다르고 어느 피가 정맥이고 어느 피가 동맥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도리를 알려면 마음 깊이 자기 주인공에다 억겁을 통해서 종이 됐던 그 문서를 다 태우시라 이겁니다.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 가환이 있는 거 가난한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쓰린 거 모두를 내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물러서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안 되는 것도 '바로 당신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고서 놓으신다면 바로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조급하게 안 됐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면 자기를 못 믿는 거지.

누가 뭐, 부처님이 오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응?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세상이 있는 거고, 살림이 있는 거고,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이 세상 모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만법이 나고 자기로 인해서 만법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사무치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 나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녹음 안됨) 귀중한 몸 벗기 전에…. 하다못해 산중 깊이 들어 있는 짐승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하다못해 물속에 들어 있는 생물들도 마음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늘,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뜻과 더불어 한자리에 끄달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 극락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극락도 욕심내지 마시고 빨리하려고도 욕심내지 마시고, 언제나 이런 거는 있어야 하죠. 꾸준히 모든 걸, 들이고 내는 거, 하나 움죽거리는 것도 꾸준히 관하시면서….

이건 송장이에요. 여기에서 혼백만 빠지면 이건 송장이야. 이 성품이 다 이걸 운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품이 있기 이전 바로 참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품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린다는 걸 여러분이 직감으로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떠나서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겨서 자기가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거죠.

여러분의 몸뚱이가 바로 부처님의 법당이요, 그 법당 안에는 여러분의 자성, 자부처가 바로 거기 도사리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쥐려야 쥘 수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건만 어떻게 그렇게 묘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동적으로 움죽거리게 하시나. 그러면서도 천차만별로 고정되게 있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수많은 일체 부처, 일체 중생, 유생 무생이 다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나투어도 여러분이 그 이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고정되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체 부처가, 일체 법신, 화신, 보신이 다 내 한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산신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모든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조상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저렇게 앉아 계시는 저분이 예전에,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와 더불어 같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자손들을 낳아서 그렇게 내 목숨이 앗아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아리따운 마음을 먹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겼고 스스로 자비가 나오고 스스로 사랑이 나오고, 불쌍한 사람을 길을 가다 만나면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한 이치도 있듯이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는 헛믿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믿으러 다닌다 할지라도 믿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는 길을 인도받는 거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고 그래야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자기를 잘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고 부모를 배신하는 거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자부처는,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자부처는 법의 조상입니다. 자기 육신을 진화시키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지 때에 따라서는 참, 아까 얘기했듯이 칼로 퍽 찔러서 죽여도 그것은 자비로써 살린 거지만, 도인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명만 쳤다 뿐이지 바로 살린 것이지마는 여러분은 그러한 이치도 못 되면서 만약에 남의 생명을 앗아 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수껏 살아야 한다. 나한테 오지 않는 걸 억지로 개천을 건너뛰어서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개천에 빠진다. 이런 문제들이 왕왕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어느 정도껏 두라는 얘깁니다. 중도에다 항상 두고, 항상 중도에 두되 중도에 두는 거마저도 자기 주인공에 맡기면서 선하고 착실하게, 좀 더 겸손하고 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항상 좋은 말은 남한테 해 주고 언짢은 말은, 신경 쓸 일은 얘기하지 말고 안으로 굴리고, 남편하고도 서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이틀, 열흘, 한 달을 자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안으로 굴려서,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바로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가서 자래도 안 자. 그런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만 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서 참복락을 이루는 거지, 그런 도릴 모르고 어떻게 복락을 이루고 공덕을 이루면서 무심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하다못해 산중 깊이 들어 있는 짐승들도 마음공부를 하고,
물속에 들어 있는 생물들도 마음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늘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그 뜻과 더불어 한자리에
끄달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그 극락을 모르십니까?

※위 법문은 1986년 3월 25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 논단

충청 예찬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충청도민으로 살아온 지 30여 년
충청 출신은 아니지만 애정은 커
독특한 특징중의 하나가 '느긋함'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짜증'대신 특별한 지혜로 대응해
변할수 있음을 알고 순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주 의식도 발달해
지역 감정 · 군중심리 영향 적어
충청 민심이 선거분수령인 이유

충청도민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을 훌쩍 지나고 있다. 이곳 출생이 아니라 본토 충청도 사람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덕사 스님' 또는 '부석사 스님'으로 부르니 '충청도 스님'으로는 분명하게 인정을 받는 것 같다.

어느 지방이든지 그 지방의 독특한 지방색들이 있기 마련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지방색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지방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청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급할 것도 바쁠 것도 없는 '느긋함'일 것이다. 사람 사는 일에 충청도라고 바쁘고 급한 일이 없을까 만은, 여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바쁘거나 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몸도 마음도 차분하고 느긋하다. 어떨 때는 얄미울 정도다. 상황이 급해서 좀 빨리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단체로 인도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의 매일매일 한국의 시스템과 너무나 다른 '인도의 현실'을 접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비롯하여 가는 곳 마다 접하게 되는 '기다림'과 '답답함', '황당함'을 겪게 되면서 '성지순례의 기쁨'과 더불어 짜증과 분노를 억누르고 다스리는 '마음수행'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유독 충청도 사람들은 인도 특유의 기다림과 답답함, 황당함으로 고통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옛날부터 수행자들의 걸음을 '우보(牛步)'나 '호보(虎步)'라고 하였는데, 소걸음이나 호랑이 걸음처럼 느리고 여유로운 걸음을 말한다. 충청도 사람들의 느린 걸음과 그 마음도 우보와 호보에 비교 할만하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만약 계획한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불만과 짜증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주지를 10여 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처음 계획과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 일하면서 가장 많이들은 말이 "손바닥만하게 하려면 방석만하게 되유~"이다. 일은 늘 변하고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양도 변하고 시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많아진다. 일이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 줄 알고 일을 하니 불만도 짜증도 이겨낼 수 있었다.

충청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충청도는 민주주의 의식이 무척이나 발달한 곳이다. 여러 번 선거를 해봤지만 여기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도 정치적 견해를 잘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끼리도 투표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 표는 내가 알아서 찍을 테니까 자네 표나 잘 찍게"라고 말하곤 한다.

경험으로 보건대 이곳 사람들도 동정표를 주거나 여러 가지 인연에 따른 투표를 하곤 한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규정된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역감정으로 군중심리로 정치판이 요동을 쳐도 이곳 사람들은 그런 영향이 적은 것 같다. 각종 선거 때마다 충청의 민심이 분수령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때로 사람들이 '충청도핫바지'라고 비아냥거려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별로 마음에 둘 일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주인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남의 말에 흔들릴 까닭이 없는 것이다.

社 說

희망 · 치유로 봉축 맞이하자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다.

봉축 주간의 공식적 시작은 4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봉축점등식이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재현됐다. '미륵사지탑 등(燈)'은 좌대를 포함하여 높이가 18m에 이르며 미륵사지탑의 70% 크기에 회화적인 면을 더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반목과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불자들이 군인과 경찰의 총칼에 희생되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점등사에서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오며 심신에 커다란 무게를 견딘 사부대중 마음에 환희로운 자비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미얀마에 하루빨리 따스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희망'이라는 서원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정됐다고 한다.

서울광장과 전국 곳곳에 희망의 등이 불을 밝혔다. 이 등불들은 한달 동안 한반도를 밝힐 것이다. 누군가는 등불들을 보며 희망을 갖고, 누군가는 치유를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미증유의 시간을 넘어가보자.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에 부쳐

불교적 신념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불교리더스포럼'으로 뭉쳤다. 불교리더스포럼은 2012년 발족한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의 연장선이다. 이번에 위촉된 각분야 전문가들은 불교리더스포럼 5기로 활동하게 된다.

불교리더스포럼은 기존 불교포럼의 발전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포럼이 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 수준이었다면, 불교리더스포럼은 15개 전문분야별 인재들이 분과를 구성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서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변화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5개 분과별 전문가그룹 500여명 외에도 지역포럼을 새롭게 개설해,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교지도자를 발굴해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종교적 자산인 인재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불교지도자네트워크는 불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대한 종단적 관심사를 확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이 불교 인재 활용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불교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신심 증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조직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리더스포럼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신심 증장과 역량 확장은 물론,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부처님오신날 법당 풍경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 강당 행사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위한 떡과 음료수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앞두고 준비를 위한 회의를 위해 몇몇 병원 봉사자들을 사찰에서 만나게 되었다. 봉사자들은 서로 반가워하며 지난 부처님오신날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후 처음 몇 달은 마스크 품절로 인해, 병원 의료진들도 마스크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 불자들과 힘을 모아 마스크를 모아 병원에 기부했던 일을 얘기하며 봉사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아휴 그때 마스크 몇 개 가지고 스님을 만났잖아! 그때는 마스크가 너무 귀했지."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 감회가 새로웠다. 한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병원에 힘이 되고자 하던 불자들의 마음이 병원관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2018년 연등설치 불허로 빛어졌던 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었다. 위기가 기회였던 순간이었다.

"우리 법당에서 마스크 기부하고 부처님오신날 떡나눔 할 때 말이야. 생각나?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그림 · 최주현

하고 직원들이 좋아하던 모습 말이야." "스님 이번에도 꼭 계셔야 해요." 노보살님들은 몇 번을 스님이 계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고개를 끄떡였다. 병원직원들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 병원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노보살들은 떡과 음료를 정성스레 나누며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허리숙여 인사하며 용기를 주었다. 직원들은 봉사자들의 인사에 당황하면서도 자신들의 할머니를 만나는 듯 환한 미소로 떡과 음료를 받아갔다. 노보살님들은 거의 서너 시간을 힘든 줄도 모르고 떡나눔을 하였고, 행사가 끝난 뒤 다리를 절며 허리를 두드리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팀장은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팔을 걷어 부친다. "작년에는 떡이 모자랐어." "떡을 받아가지 못하는 직원이 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휴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이번에는 5말을 더해서 30말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는 플래카드를 좀 부쳐요." 한 봉사자의 말에 모두 맞다고 고개를 끄떡인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떡나눔행사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우리 병원 고생하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병원불교법당 스님과 봉사자들 마음모음-

뚝딱 플래카드 하나 만들고 봉사자들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우리 병원법당 봉사자들의 마음은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배움은 바른 실천(행)을 통해 완성된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부처님 당시 정법시대에는 수행을 통해 대아라한과를 증득한 이가 수천에 달했는데, 지금 불기 2565년 말법시대라고 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가 아예 전무한 상태고 다만 유튜브나 절집에서 노보살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스님이 신통방통하다는 뜬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또 이벤트 행사로 방송용 텐트수행을 통해 지팡이 짚은 수염도사를 만들지 않나, 고작 한다는 게 이런 것뿐이니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불, 간경, 좌선, 참선, 이뭣고 등등을 통해 득한 게 있으면 입은 다물고 4부 대중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얼마 전 방송에서 어느 재가불자가 우리 불교는 정체성을 잃은 지가 오래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몇 해 전 어느 선원장이 유학 후 지리산에 선원을 틀고 선원장 모임에서 한 얘기를 기억한다. 우리가 안거하는 방식을 바꾸어 30일을 좌선, 참선을 하고 나머지 기일을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자고 하니 거기 모였던 이들이 참 좋은 얘기라고 말은 했으나, 시간이 흘러 그 말을 했던 선원장이 괜히 무안해 지더라는 것이다. 소록도에서 자비봉사를 실천했다면 아마 그곳이 불국정토가 되었을 것이고, 이때야 말로 전설의 꽃인 우담바라가 피지 않았겠나. 아울러 전 세계 방송매체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 오로지 기복과 유혹적인 말과 글뿐이다. 제발 바르게 실천하자. 배움은 바른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안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는 성직자들의 성불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불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행자로써 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법 은사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불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일 뿐이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누각(砂上樓閣)" 에 불가한 것이고 성불(깨달음)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공양이나 보시를 하고자 할 때는 여래 십호에서 보듯이 꼭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에게 해야 그 공덕이 바른 인연 공덕이 된다고 하셨다. 명심하고 새길 일이다.

◉ 사례1 : 코로나 19

2020년 12월 12일 늦은 시간에 20여년 지기 서울보살님이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 차분히 얘기를 하라고 진정시킨 다음 얘기를 하게 했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관리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12월 3일 ~ 12월 9일 사이에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거나 관리소장을 대면한 사람은 빨리 신고하고 검사받으라고 한다. 그럼 보살님은 사무소를 방문했느냐? 하니 방문뿐 아니라 소장과 같이 대면해서 차도 마시고 긴 대화도 했고, 그리고 소장이 직접 보살자택(34평)을 방문해서 일체의 조명등을 교체해 주고 차와 과일까지 대접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기간에 노령 환우 돌보는 일로 3가구 방문했으며 또 출가한 딸들 집을 각각 방문해서 손주, 손녀들을 돌보고 왔다 한다. 그래서 빨리 사실대로 신고하고 지금부터 기존에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유선으로 새로운 기도문을 알려주고는 당분간이 아니고 매일 2번씩 평생 하라고 했다. 병약한 환우 가족들과 어린외손자, 손녀를 안고 어루만지며 놀았으니 그 불안한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빨리 연락 하라며 끊었다. 12월14일 오전에 전화가 왔다. "스님 감사하고 고맙다"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며 또 우는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님.

◉ 사례2 : 희귀병

2020년 12월28일 어둠이 깔릴 무렵 긴급전화가 법사님으로부터 왔다. "스님. 제가 119에 실려서 마산 000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길래 지금부터 들숨, 날숨에 000을 염송하고 도착과 동시에 연락하라 하고 끊었다. 당시 상황이 긴박했기에 염송을 하라는 의미로 빨리 끊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다시 어디냐고 물으니 무조건 "스님 고맙습니다"만 연발하며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법사님은 일찍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오랫동안 불교 청년회에 몸담아 지금까지 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4년 전에 중간관리자로서 명예퇴직과 동시에 직장을 옮기게 된 곳이 창원이다. 그래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있던 차였다. 일요일은 여지없이 연등사에서 꼭 법회를 보고 있다. 이 법사님은 5년 전 연등사와 인연이 될 때 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12월 30일 오전에 또 긴급한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 법사였다. 또 119에 본인이 스스로 호출해서 실려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일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당에서 나름 기도를 하고 전화가 왔길래 퇴원과 동시에 절에 와서 기도 받으라 했다. 그래서 2021년 1월1일 ~ 1월2일 이틀간 기도받고 지금까지 아무 고통 없이 생활 잘하고 있다. 알고 보니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법 오래된 병이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금년 구정 전날 전 가족이 다 같이 절에 와서 스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다. 사실 법사 가족들은 전부 천주교인이다. 그 전에 가족들에게 법사가 연등사 스님얘기, 조현병, 말기암,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 등등을 기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장면을 많이 보고(스님은 신도님들과 더불어 보는 데서 기도함) 실제로 사례자들이 오고 있고 해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말을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 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결국 한 가정의 가장이 병원이 해결 못하는 것을 두 번의 기도로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가끔 오겠다고 했고 딸은 대학졸업 반이었는데 정기적으로 스님을 뵈러 오겠다고 하며 지금은 틈나는 대로 야채빵을 만들어서 스님 드시라고 아빠 편에 보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잊을 만하면 규모가 있는 큰 절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많이도 받았다. 그때 마다 꼭 스님과 신도 일부가 같이 동행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소납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가겠다고 했다.

첫째 : 신도회(관음, 지장, 반야, 보리, 정진, 육법공양 등등,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일체 만들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있는 것도 없애겠다.

둘째 : 일체 절간을 넓히거나 짓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도재양성을 위주로 교육 불사에 매진하겠다.

셋째 : 각 전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대웅전과 요사채를 제외하고 전부 전답을 만들어 자작을 원칙으로 하겠다.

넷째 : 일체의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 행위를 하지 않겠다.

예로, 사주, 점, 기도(재수, 운, 대학입시, 사업성취, 띠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등)와 고기방생, 성지순례, 인등, 큰등, 작은등 현재 있는 것은 철거 시키겠다.

다섯째 : 아나바다를 실천하겠다, 소납은 출가 후 부처님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 소납은 가구를 비롯하여 모든 생활도구를 전량 주워 쓰고 있다.

또, 이웃돕기를 하되 내 양말은 내손으로 기워 신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그것을 소납이 직접 몇 켤레를 기워 신었는지 확인하고 기운 숫자만큼 새 양말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신도님 시켜서 관공서, 학교 등이 아닌 어려운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금전적인 보시를 하고자 할 때도 역시 관공서, 학교 등이 아니고 저 달동네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 동네 사는 이가 잘 안다. 그럼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백지 봉투 속에 넣어 밀봉을 하고 그 집 담 너머로 아무도 모르게 던져주고 오라는 것이다. 절대 헛기침소리도 내지 말고 왜냐면 모든 성인의 바른 가르침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온통 소문내서 방송이나, 말로, 글로,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띠삼재풀이, 기도, 부적, 고기방생, 성지순례 등 일체의 요행이나 잡귀를 하지 않을시 우선은 기존 신도들이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떨어져 나갈 것인데 감수할 수 있겠냐고. 예를 들면 추수철에 타작을 하면 곡식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겠다고 하였으며 제의하는 곳마다 한 달 기한을 주었다.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연락이 온 곳이 없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466-9991 (김00)
- 010-4807-6932 (박00)
- 010-5699-3173 (박00)
- 011-9143-0098 (김00)
- 010-8291-9423 (변00)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